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志賀直哉의 『和解』論

－ 준키치(順吉)의 의식변화과정을 중심으로 －

The sea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is a large, faint watermark in the background. It is circular with the text "CHEJU NATIONAL UNIVERSITY" around the top and "SINCE 1952" around the bottom. In the center is a shield-shaped emblem with the Korean characters "제주대" (Jeju University) and a book below it.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 教育專攻

高 同 玉

2007 年 月

志賀直哉의 『和解』論

— 준키치(順吉)의 의식변화과정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成 俸

高 同 玉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 年 月

高同玉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7 年 月

<국문초록>

志賀直哉의 『和解』論
-준키치(順吉)의 의식변화과정을 중심으로-

高 同 玉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成 俸

志賀直哉는 격변하는 일본 근대사의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쇼와(昭和)기를 체험하면서, 1904년 처녀작 『菜の花と小娘』를 시작으로 1956년 『白い線』에 이르기까지 약 50여년의 창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白樺派’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그 예민한 감수성과 정확한 표현으로 사소설을 완성한 작가이다. 志賀直哉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게다가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 즉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선명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데 뛰어난 작가로 ‘소설의 神’이라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은 志賀直哉의 작품 성향을 대표하는 것으로 『和解』를 들 수 있다. 志賀直哉의 인생에서 아버지와의 장기간의 대립으로 인한 내면적 갈등은 인생 최대의 난제였으며, 정신적 압박감의 근원으로, 『和解』의 주인공 順吉을 통해서 당시 자신의 괴로움을 여실히 그려내고 있다.

志賀直哉는 어린 시절 조부모 손에서 성장하면서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되고, 이 같은 가정환경은 그의 강한 자의식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특히 志賀直哉는 할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상대적으로 아버지를 비하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로 인해 志賀家の 가장으로서 아버지를 재인식하기까지 내면적 갈등을 빚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和解』의 주인공 順吉에게 반영되어 그대로 작품 내에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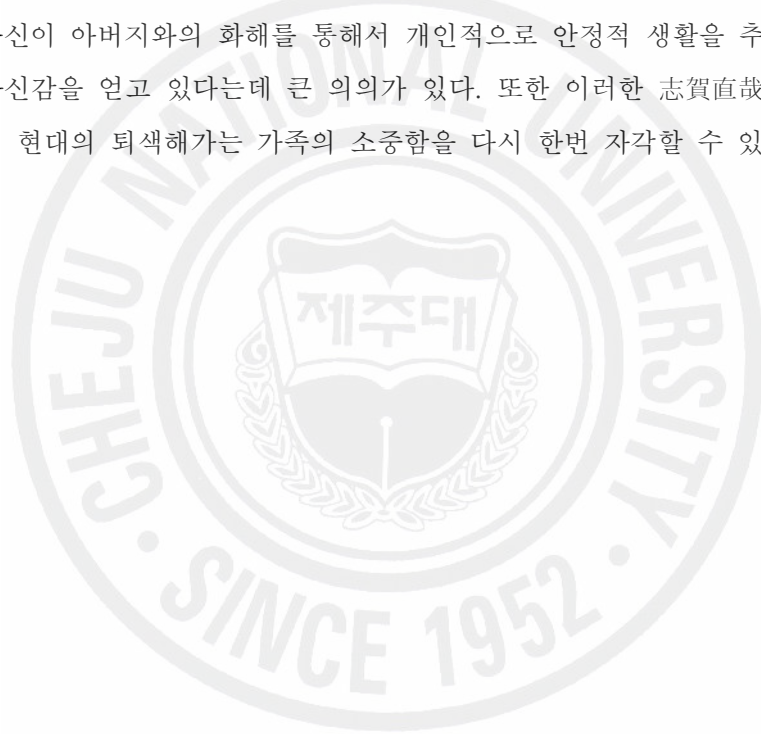
順吉은 그전에 있었던 자신과의 불화를 해소할 목적으로 그가 살고 있는 교토를 방문한 아버지의 만남을 거부한다. 더욱이 그에 관하여 사죄의 마음을 조금도 갖지 않는 順吉에게 격노한 아버지로부터 아자부 친가의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갈등은 심화된다. 아버지와 갈등의 또 하나의 원인은 順吉의 결혼문제로 그로 인한 불화로 아내 사다코(康子)는 신경쇠약증을 앓으면서 順吉부부는 불안으로 얼룩진 신혼생활을 시작한다. 무엇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태어난 장녀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죽은 손녀를 가족 묘지로 이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아버지에게 심한 분노를 느끼게 된다. 결국 아버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녀의 가족 묘지의 이장을 하면서 아버지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順吉은 차녀 탄생 이후 가장의식을 자각하며 아버지와 관계를 재조명하게 되면서, 자신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인품이 한 단계 도약된다. 그리고 직업작가인 順吉은 장편 「夢想家」 집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순화하고 여과

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자아가 성숙된다.

順吉은 자신의 실질적인 부모라고 여겼던 할머니의 죽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자각된다. 또한 아버지와의 화해를 위해 중재자가 되어준 계모의 배려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친구 M의 도움으로 順吉은 조화적 심경이 되어 아버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조명하게 된다. 그리고 여행을 통한 자연과의 교감으로 順吉은 조화로운 심경이 되어 아버지와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가족간의 갈등 특히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가정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서 그 갈등의 정도는 다르지만, 志賀直哉의 경우는 조부모 손에서 성장한 배경과 맞물려 그 정도가 심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아버지와의 화해를 뜻깊게 아로새기는 작품 『和解』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아버지와의 화해를 회구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志賀直哉 자신이 아버지와의 화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안정적 생활을 추구하게 되고 작가로서의 자신감을 얻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志賀直哉의 강한 혈연의식을 통해서 현대의 퇴색해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었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II. 시가나오야(志賀直哉) 문학의 배경	5
1. 시가의 가정환경	5
2.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와의 교류	7
3. 「白樺」의 영향	10
III. 아버지와의 갈등	14
1. 교토(京都) 사건	14
2. 결혼문제	16
3. 장녀 사토코(慧子)의 죽음	18
IV. 자아의 성숙	22
1. 차녀 루메코(留女子)의 탄생	22
2. 자기 반성적 사고	24
3. 「夢想家」 집필을 통한 자아성찰	27
V. 조화적 심경	31
1.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인식	31
2. 주위의 배려	35
3. 자연을 통한 자기순화	40
VI. 결론	45
참고문헌	47
ABSTRACT	49

I. 서론

시가나오야(志賀直哉: 1883~1971, 이하 '시가'라 칭함)¹⁾는 예리한 관찰과 선명한 묘사로 자신의 신변과 관계된 일을 작품화했던 사소설 작가로 그의 실생활 체험 양상은 작품의 모티브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시가는 격변하는 일본 근대사의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쇼와(昭和)기를 체험하면서, 1904년 처녀작 『菜の花と小娘』를 시작으로 1956년 『白い線』에 이르기까지 약 50여년의 창작 활동을 전개하였다.²⁾

시가는 1914년 『兒を盗む話』를 발표 후, 3년 남짓의 공백기를 보낸다. 그 후 1917년 『城の崎にて』 발표로 창작활동을 재개하고, 마침내 같은 해 10월 「黒潮」잡지에 『和解』를 발표한다.

『和解』는 당시 시가 인생의 최대의 난제이며, 정신적 고뇌의 근원이었던 아버지와 불화가 해소되어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묘사한 사소설이다. 시가 자신도 『和解』는 아버지와 불화가 해소된 흥분과 기쁨으로 보름 만에 완성하였고, 이와 같은 창작 기록은 자신의 작품 활동 중 전무후무하다³⁾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듯이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和解』를 포함한 시가의 초·중기 창작 활동⁴⁾은 그의 문학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시가의 초·중기 작품에서는 주변과의 대립관계를 거의 작품의 주제로 삼고 있다. 즉 자신과 아버지와 대립, 인간과 사회와의 대립, 남·녀의 대립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의 대립이라는 형태로까지 전개된다. ⁵⁾이러한 모든 대립 구도는 부정과 불쾌에 대한 결벽스런 윤리관을 모태로 한 시가의 개인주의적 자의식에

1) 紅野敏郎 (1981), 『年譜』, 『鑑賞日本現代文学7 志賀直哉』, 角川書店.
본 논문에서 연대, 나이 등은 여기에 따르기로 한다.

2) 下沢勝井, (「志賀直哉における生活と文学」, 『志賀直哉II』, 有精堂, 1971, pp.168~170.

3) 志賀直哉, 「続創作余談」, 『現代日本文学大系34』, 筑摩書房. 1938, p.398.(재인용)

4) 요시다 세이치(吉田静一), 이나가키 다쓰로(稲垣達朗) 등은 시가의 작품 활동 시기를 공백기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제1기(1904~1914)는 혼돈과 모순된 갈등의 시대이고, 제2기(1918~1929)는 조화적이고 안정된 시기이며, 제3기(1933~1956)는 조화정신이 더욱 고취된 시기라고 고찰하고 있다.

[下沢勝井, 「志賀直哉における生活と文学」, 『志賀直哉II』, 有精堂, 1971, p.171.(재인용)]

5) 今野宏, 「志賀直哉の調和的精神」, 『志賀直哉I』, 有精堂, 1978, p.97.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시가의 강한 자의식은 실생활에서 아버지와 충돌하게 되고 그로 인한 내면적 갈등은 그의 작품의 주축이 되어서 심경소설로써 표현되었다. 초기 작품에서는 극도의 대립상태가 두드러지면서 『汜の犯罪』에서는 반조화적이며 자아중심주의의 특색이 최고조에 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극도의 대립적 경향이 죽음과 삶의 본질을 직시한 『城の崎にて』를 거치면서 안정적 방향을 모색하고, 이윽고 『和解』를 정점으로 해서 조화적 경향으로 정립하게 된다. 즉 『汜の犯罪』를 포함한 시가의 전기에서 다루었던 요소가 ‘반발, 갈등, 불화’로 한정된 대립적 경향이었다면, 중기의 『和解』에 이르러서는 ‘반발, 갈등, 화해, 조화’의 요소로 확대되면서 안정되고 조화로운 경향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和解』를 기점으로 초·중기의 시가의 문학양상은 극명한 대조 이루고 있다. 그리고 『和解』를 시점으로 정립된 조화적 경향이 후기의 작품에까지 원숙하게 심화·발전되는 문학적 경향을 고찰해 볼 때, 『和解』가 시가의 삶과 문학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和解』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그 중 기쿠다 시게오(菊田茂男)는 「志賀直哉とメーテルリンク」에서 메테를링크 사상⁶⁾이 시가의 조화적 정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시가는 메테를링크의 사상의 영향으로 초기 작품의 특징인 반항적·위기적인 경향이 서서히 사라져서 『和解』에 이르러서는 관용적·평온적인 경지를 바탕으로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⁷⁾

그리고 시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고찰한 다케모리 덴유(竹盛天雄)의 「志賀直哉における父と子」는 부자간 갈등의 근원을 조부모 밑에서 성장한 시가의 가정환경에 두고 있다. 특히 할아버지 나오키치(直吉)의 위대함이 시가와 아버지 사이

6) 모리스·메테를링크(Maurice·Materlinck)는 벨기의 태생의 세계적인 작가이며, 또한 시인, 사상가로서 191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작품전개는 초기·중기·후기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초기 사상은 당시 유럽의 신비주의의 영향으로 죽음과 운명에 얽히는 염세적·신비주의적 숙명관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초기의 신비주의적 숙명관을 탈피하여 중기에는 운명에 대해서 적극적·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며 불행한 운명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낙천적 사상을 전개한다. 이러한 사상을 집약한 감상평론집이 「智慧と運命」이다. 후기에는 자연현상과 생명 깊숙이 잠재된 신비의 실체를 찾고 심화시키려는 측면에서 한층 심화된 이상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菊田茂男, 「志賀直哉とメーテルリンク」, 『志賀直哉II』, 有精堂, 1965, p.102.)

7) 菊田茂男, 「志賀直哉とメーテルリンク」, 『志賀直哉II』, 有精堂, 1965, p.99.

에 있어야 할 격차를 축소시켜서 시가 자신이 은연중에 아버지를 내려다보는 우울감이 형성되었다고 논하고 있다.⁸⁾

이와 달리 『和解』에서 주인공 준키치(順吉)가 집필하는 「夢想家」라는 미완의 소설에 주목한 이케우치 테루오(池内輝雄)의 「『和解』論」에서는, 「夢想家」소설의 집필과정을 통해서 부자간 화해 과정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다.⁹⁾

이밖에도 『和解』의 구성과 내적시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한 야마다 유사쿠(山田有策)의 「『和解』の構造」¹⁰⁾가 있으며, 유사쿠의 논문과 앞서 소개한 이케우치의 논문을 비교하면서, 논지를 전개한 세키야 이치로(關谷一郎)의 「『和解』論の提言」이 있다.¹¹⁾

국내에서 이루어진 『和解』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私小説에 있어서 作家의 實生活의 體驗樣相」¹²⁾에서는, 『大津順吉』와 『和解』에서 나타나는 부자갈등의 양상을 살펴보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시가나오야(志賀直哉) 문학고찰」¹³⁾에서는, 시가의 유년시절에 영향을 준 할아버지와 교유를 살펴보고 아버지와 갈등의 원인을 소원했던 부자간의 교유에 있다고 고찰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¹⁴⁾에서는, 부자간 화해는 아버지와 준키치의 각성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기반에는 아내와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음을 논하고 있다.

본 연구는 『和解』의 주인공 준키치가, 아버지와 갈등 속에서 자아의 성숙을 이루고 조화적 심경으로 변모하는 의식변화의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和解』가 사소설이라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주인공 준키치는, 시가 자신을 투영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和解』작품을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할 때, 시가의 실생활과 전체적인 일생을 조명하는 것은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집필한 시가의 작품 소재 대부분이 그의 실생활을 범주로 하여 한정하고

8) 竹盛天雄, 「志賀直哉における父と子」, 『志賀直哉II』, 有精堂, 1978, p.59.

9) 池内輝雄, 「『和解』論」, 『日本文学研究大成, 志賀直哉』, 株式会社国書刊行会, 1976, p.223.

10) 山田有策, 「『和解』の構造」, 『一冊の講座, 志賀直哉』, 有精堂, pp.75~86.

11) 関谷一郎, 「『和解』論の提言」, 『国文学解釈と鑑賞』, 至文堂, 1987, pp.94~99.

12) 오상현, 「시가 나오야의 『大津順吉』와 『和解』를 중심으로」, 한국일어일문학회, 1998

13) 최양재, 「시가나오야(志賀直哉) 문학고찰 -가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원주대학교, 2004

14) 윤복희, 「아버지와 아들-시가나오야의 화해-」,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그가 남긴 일기 및 창작 후기 등의 개인적 기록을 통해 그의 삶과 정신적 세계관에 접근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인용은 新潮文庫의 『和解』를 텍스트¹⁵⁾로 했다. 또한 본 논문에 한국어 번역은 본인이 했으며, 시사 일본 명작시리즈 『和解』의 장남호 역을 참고하였음을 명시한다.



15) 志賀直哉, 『和解』, 新潮文庫, 1982.

II. 시가나오야(志賀直哉) 문학의 배경

자신의 실생활을 작품으로 형상화했던 시가의 문학세계를 비추어 볼 때, 그의 인격형성과 삶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가의 가정환경, 청년시절에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 1861~1930.)와의 교류, 그리고 시가가 문학 활동을 하던 시대상과 그의 창작활동의 궤적인 「白樺」를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시가의 가정환경

시가는 1883년에 宮崎縣 石巻에서 아버지 나오하루(直濶)와 어머니 긴(銀) 사이에 차남으로 태어났다. 시가는 유아기 때부터 조부모 손에서 양육되었다. 이 같은 배경의 결정적인 이유는 시가가 태어나기 일 년 전에 죽은 그의 형의 죽음을 젊은 부부의 과실이라고 여겼던 조부모의 판단 때문이었다. 시가 나이 12세 때 어머니가 급사하면서 조부모에게 더욱 각별한 보살핌을 받게 된다.¹⁶⁾ 시가는 『稻村雜談』 중 『祖父』에서 당시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잤던 적도 있었지만, 15살 정도까지는 보통 할아버지와 함께 잤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내 잠자리가 있어서, 추울 때 갈을 때는 곧잘 할아버지 잠자리 속으로 들어가 잤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몸집이 아주 커서, 그 품이 좋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¹⁷⁾ 이러한 점으로 보아 조부모의 손자에 대한 사랑은 유별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가정환경은 시가의 강한 자아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시가는 할아버지에 관해서 『續創作余談』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나는 할아버지를 존경했다. 나는 육친이라는 사사로운 정을 제외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났던 가장 존경해야 할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서 할아버지를 존경한다.

私は祖父を尊敬した。私は肉親といふ私情を除いても、自分の此世で出會った三四人の最も

16) 浅井清, 『研究資料現代日本文学』, 明治書院, 1982, p.179.

17) 최양재, 위의 논문, 원주대학교, 2004, p.167.(제인용)

尊敬すべき人の一人として祖父を尊敬してゐる。18)

위의 인용문에서 시가의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얼마나 큰 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할아버지 나오미치는 시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가는 할아버지에게 어떠한 감화를 받았는지 살펴보겠다. 시가집안은 무사집안으로 할아버지는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¹⁹⁾의 제자로 그의 사상을 몸소 체득한 인물이었다. 할아버지는 니노미야의 ‘사상과 생활의 일치를 중시하고 사상이 인간을 살리고 인간이 사상을 살리려면 청결한 양심의 겸허한 반성을 최저의 조건으로 한다’²⁰⁾는 가르침을 따랐다. 이 같은 할아버지의 사고방식과 생활 자세는 시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 나카무라 미쓰오(中村光夫)는 “사상이 인간을 유형화하는 것처럼 또한 감정은 인간을 개별화한다고 하면, 여기에 그가 할아버지의 감화를 통해서 깨달은 개성의 자각이 있고, 이것이 그의 생애의 근본을 규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²¹⁾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시가의 개성은 다음에 고찰할 「白樺」를 통해 더욱 강렬해진다.

위에서 말하였듯이 니노미야 손토쿠의 제자였던 할아버지 나오미치는 옛 한슈(藩主)의 부하로서 헌신적으로 종사하였고, 아버지 나오하루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慶応義塾 출신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이다. 江戸막부 시대의 독농가(篤農家)였던 할아버지 나오미치의 윤리관으로 보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빈부 차, 농촌과 도시의 대립, 물질만능주의 등의 폐단을 안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때문에 그 같은 이익 사회에서 활약하는 아들을 다소 비난한 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²²⁾ 할아버지에게 인격적 감화를 받은 시가에게도 이 같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침투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시가와 할아버지의 긴밀한 유대관계에서 오는 악영향으로 시가는 무의식중에 할아버지의 시각으로 아버지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18) 小川国夫, 「志賀直哉の家」, 『志賀直哉I』, 有精堂, 1967, p.116.(재인용)

19) 二宮尊徳(1787~1856): 에도 말기에 독농가로 니노미야 긴지로(二宮金次郎)라고도 한다. 相模출신으로 報徳教를 창설하고, 스스로 음덕, 적선, 절약을 실천하였다. 농업기술을 개량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농촌생활을 예찬한 저서를 여러 권 펴내 ‘일본의 농민철학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20) 최양재, 위의 논문, 원주대학교, 2004, p. 171.(재인용)

21) 中村光夫, 『志賀直哉論』, 日本図書センター, 1992, p.39.

22) 安岡章太郎, 「志賀直哉論 - 友情と肉親 -」, 『現代日本文学大系34』, 筑摩書房, 1967, p.438.

할아버지를 존경했던 시가는, 할아버지와 상반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더욱 반감을 느꼈을 것이다. 『ある男、その姉の死』에서 이 같은 시가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가장으로서 조부의 태도가 실로 그러했습니다. 집안에는 유유자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조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점점 더 조부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새로운 가장인 아버지가 성격적으로 이상하게 가족들을 위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家長としての祖父の態度が實にそれでした。家じゅうにはなんとなく悠々とした氣分がみなぎってりました。私共は祖父に死なれて反つて段々祖父をなつかしむやうになりました。一つは新しい家長なる父が性格的に變に家人をおびやかす方だつたからでもありませう。²³⁾

위의 인용문에서 시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아버지를 비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아버지와 심적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부자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아버지를 배려하지 못하고 갈등이 증폭되었다고 여겨진다.

2.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와의 교류

청년시절에 우치무라와의 교류는 시가의 독특한 윤리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시가와 우치무라의 교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가와 우치무라의 교류는 1900년부터 1908년까지의 7여년으로, 그의 나이 17세부터 25세까지이다.²⁴⁾ 시가와 우치무라의 만남은 1900년에 書生 스에나가 가오루(末永馨)의 적극적인 권유로 제2회 하기강습회에 참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당시 시가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작품 『自轉車』를 살펴보면, 우치무라 선생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소년 나뭇의 죄의식 혹은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시가는 집 근처의 하기와라(萩原)의 가게에서 새 자전거를 구입한다고 약속하고, 자신의 중고 자전거를 얼마간의 돈을 받고 되판다. 그러나 결국 다른 가게에서 새 자전거를 구입하고 마는데 이에 대해 상당

23) 이정아, 「志賀直哉 作品研究 :父子間の 갈등과 화해를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2000, p.17.(재인용)

24) 野山嘉正, 「内村鑑三と志賀直哉」, 『一冊の講座, 志賀直哉』, 有精堂, 1982, p.177.

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술회하고 있다. 결국 시가 자신도 『内村鑑三先生の憶ひ出』에서, “거의 동기다운 동기도 없이 기독교를 접한 것처럼 기술했지만, 역시 이런 일이 동기가 되어서 접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고 정정하고 있다.²⁵⁾

즉, 시가의 기독교와의 접촉은 자신의 죄책감을 털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스에나가의 권유를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우치무라와의 만남은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가는 우치무라와의 첫 만남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생님의 말도 기도도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기도 등은 억지로 생각하게 하는 듯한 억양이 조금도 없는 빠른 말투로 힘과 알 수 없는 진실함이 담긴 것이었다. 또 성서에 관하여 이야기 하실 때에도 쓸데없이 감상적인 데가 없어서 가슴이 후련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생각나지 않지만, 처음으로 나는 진짜 설교를 들었다는 감명을 받았다.

先生の話でも祈りでも私が今まで教會で聞いたものとは全然別のものであった。祈りなどは思はせぶりの抑揚などの少しもない早い調子で力と不思議な眞實さのこもつたものであつた。聖書に就て話される事でも品の悪いセンチメンタルな調子がなく、胸のすく想ひがした。私は先生からどういふ話を聞いたか覚えてゐないが、初めて自分は本統の教へをきいたといふ感銘をうけた。²⁶⁾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시가는 기독교 신앙보다는 우치무라에 대한 경외감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가는 이제껏 접해보지 못한 형식적이지 않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우치무라의 설교에 공감하며 감동을 받고 있다. 때문에 당시의 교리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치무라의 모습은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애초부터 시가의 관심의 대상은 기독교가 아니라 우치무라에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치무라가 시가에게 최초로 영향을 준 것은 足尾銅山の 鉍毒事件²⁷⁾이었다. 시가는 1901년 우치무라와 다른 선생들이 강연하는 鉍毒문제연설회에 출석한다.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츠노하즈(角筈)의 성서연구회에서도 우치무라는 학생들에게

25) 鈴木範久, 「七、志賀直哉」, 『内村鑑三をめぐる作家たち』, 玉川大学出版部, 1980, pp.116~117.(재인용)

26) 中村光夫, 『志賀直哉論』, 日本図書センター, 1992, pp.52~53.

27) 근대 일본의 최초의 공해문제이다. 足尾銅山에서 유출된 광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度良瀬川 연안의 농민들이 鉍業정지, 손해배상을 정부와 帝国議會에 제기하며 대중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사회문제까지 확산되었다.

鉍毒地시찰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해 시가도 참가를 결의하게 된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시가는 아버지와 충돌을 일으킨다. 원래 足尾銅山은 시가의 할아버지 나옴치가 옛 한슈(藩主)의 재정재건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으로 그것을 후루카와 이치베(古河市兵衛)²⁸⁾가 인계한 것이다. 시가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에 강경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결국 시가는 그 일에 관계된 할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국 참가를 중지한다. 그리고 피해지역에 위문품을 보내기로 한다.²⁹⁾

비록 시찰계획이 무산되었지만, 광산 오염 사건은 시가에게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된다. 그러나 이마노 히로시(今野宏)는 광산 오염 사건에 대한 시가의 인식을 일시적인 감정으로 단정하고 있다.

조부, 부친의 사업에 직접 관계되는 사회문제(와타라세강 광산 오염사건) 등, 자신이 우연히 목격한 일련의 사건에는 일시적으로 감정이 심하게 끓어오르지만, 그것을 지속하고 내면화해 가는 것은 아니다.

祖父、父の事業に直接關係ある社會問題（渡良瀬川鉍毒事件）とか、たまゝ目撃した事一等には一時的に激しく燃え上るけれども、それを持續し、内面化してゆくことはない。³⁰⁾

당시 시가는 우치무라와 교류하면서, 사회구조의 모순에 진지한 고민을 하며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충돌을 감행하면서까지 시찰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할아버지의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그의 여러 작품³¹⁾에서 이 사건을 반추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만약 당시의 감정이 일회성에 불과했다면 그의 작품에서 여러 번 회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시가는 우치무라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8) 古河市兵衛(1832~1903) : 본래 성은 木村로, 小野組古河太郎左衛門의 양자이다. 실업가로서 草倉・足尾・阿仁 등의 鉍山을 경영하여 古河제철의 기초를 구축했다.

29) 鈴木範久, 위의 책, 1980, p.122.

30) 今野宏, 위의 책, 1978, p.99.

31) 『어느 남자, 그 누나의 죽음(或る男、其姉の死)』, 『야마가타(山形)』 『우치무라 칸조 선생님의 추억(内村鑑三先生の憶ひ出)』, 『이나무라 잡담(稲村雑談)』, 『조부(祖父)』 [최석재, 「시가나오야(志賀直哉)론-우치무라칸조(内村鑑三)의 영향에 관하여」, 『일본근대문학2- 연구와 비평』, 한국일본근대문학회, 2003, p.136.(참고)]

처음에는 해군, 다음은 대실업가를 목표로 했지만, 문학을 일로 삼을 마음이 든 것은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의 덕을 드나들게 되고부터 인 것 같다.

「初めは海軍人、次は大實業者を志したが、文學を仕事にする氣になったのは内村鑑三先生の所へ出入りするやうになってからのやうに思ふ」 (私はかう思ふ) 32)

당시 우치무라는 「万朝報」의 객원으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시가가 해군이나 대실업가와 같은 세속적인 직업과 다른 세계인, 문학으로 방향을 돌리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처음 문학 그 자체는 우치무라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문학관계의 일이나 교제가 많아지고 현실적인 생활을 위하여 신앙의 일, 즉 우치무라의 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치무라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을 해야 하는 문학가로서의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³³⁾ 결국 시가는 자신의 문학 활동을 위해서 스스로 우치무라에게서 독립하게 된다.

우치무라와 교류를 할 시기에 시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년이었다. 1907년 8월부터 자기 집에서 일하는 16살 식모 치요(千代)와 육체관계를 맺고 결혼을 결심한다. 그리고 이후 우치무라를 찾았을 때, 자신의 육체관계는 죄라는 얘기를 듣는다.³⁴⁾ 시가는 기독교 교리와 성욕사이의 갈등에서 고뇌하게 되고 이 같은 이유는 우치무라 걸을 떠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그러나 7여년이나 계속되는 우치무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시가는 사회 모순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불의에 대한 분노를 느끼며 정의를 추구하고자 한다.

즉 시가는 우치무라와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바른 것을 동경하고, 부정허위를 증오하는(正しきものを憧れ、不正虚偽を憎む)’³⁵⁾ 결벽에 가까운 윤리관은 그의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윤리관은 그의 삶과 문학의 저변을 이루어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3. 「白樺」의 영향

32)鈴木範久, 위의 책, 1980, p.125.(재인용)

33) 최석재, 위의 논문, 2003, p.144.

34) 김환기, 『소설의 신 시가 나오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p.22.(참고)

35)鈴木範久, 위의 책, 1980, p.128.(재인용)

다음은 시가의 문학세계에 큰 축을 형성했던 「白樺」가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산층 부르주아가 사회적 구축을 이루었던 메이지 시대는 그 모든 근대적인 움직임이 국가지상주의와 밀착되어 있었다. 오랜 쇠국에서 깨어나 ‘근대화는 곧 서구화’라는 인식하에 ‘문명개화’, ‘부국강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메이지 정부는 서구의 선진문명을 시찰하여 새로운 일본 건설을 도모하겠다는 야심 하에 외국에 사절단을 파견한다. 이들은 귀향한 후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일본의 근대화를 도모한다. 그렇게 해서 배출된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가의 아버지를 포함한 메이지 1세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당시의 모든 움직임은 직·간접으로 자본주의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조건이 되었다. 그 안에서 정부와 소수의 대상인·자본가의 정경유착은 심화되었고 노동자의 생활은 극심하였다. 러일전쟁(1904~1905) 이후 일본의 근대국가, 근대사회로의 체제가 거의 갖추어 졌다. 시민의식도 성장하여 사회 전반에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아의 각성, 개성의 존중 정신이 팽배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근대화로 인해 내실을 기하지 못한 탓에 봉건적인 성격은 좀처럼 씻을 수 없었고 근대정신의 형성도 불충분했다.

특히 메이지 후기부터 다이쇼 초기는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메이지 1세대와 메이지 2세대가 대립양상을 보였던 친구세대의 교체기였다. 메이지 1세대인 아버지 세대가 서양문명을 수용하여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시켰다고 한다면, 시가를 포함한 메이지 2세대는 이러한 근대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모순을 지적하고, 가치관의 대립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과도기의 세대갈등을 모티브로 창작을 해온 작가가 시가인 것이다.³⁶⁾

다이쇼 시대는 明治維新 이후 40여 년이 지나 메이지 1세대의 자제들 즉, 메이지 2세대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등장한다. 당시의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동양권의 실체로 부상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세계정세에 대한 강박관념과도 같은 절박한 심정도 어느 정도 느슨해지고,

36) 백영주, 「志賀直哉의 前期 作品에 나타난 自意識研究-『濁った頭』, 『剃刀』, 『范の犯罪』를 중심으로-」, 건국대 교육대학원, 2005, p. 10.(재인용)

사람들은 부국강병이 요구하는 개성의 말살에 대해 문제를 느끼게 되었다. 근대화의 이중성, 과학정신의 미숙성, 자본주의의 미숙성은 다이쇼의 군국주의와 더불어 심화되었다.

「白樺」 동인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처럼 외면적, 물질적 발달을 이루어가는 이면에 그에 조응하지 못하는 내면적 정신적 고통이 잠재되어 있던 때였다. 시라카바 동인들이 자아확대와 개성존중을 그들의 문학이념으로 삼았던 것도 이런 시대적, 사상적 배경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白樺」는 1910년 4월에 창간된 문예 잡지다. 일명 ‘白樺派’라고 불리는 동인들은 당시 문단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자연주의 문학이 물질적이고 고백적인 사실편중의 고백문학으로 치달아 가는 것에 반발하여 일어난 반자연주의 계열의 문인들이었다. 그 사상은 감각적, 물질적인 것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하는 자연주의 사고방식을 부정하여 그들의 배후에 움직이는 생명의 힘을 참다운 의미의 현실로 긍정하였으며 오직 자신들 인간내부에 있는 ‘생명’의 힘을 자각하고 그 생명력, 즉 ‘인류의 의지’를 가능한 한 확충하여 이것을 예술상으로 표현해 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큰 사명이라고 주장했다.³⁷⁾

당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는 「白樺」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문단의 천장을 활짝 열어, 상쾌한 공기를 불어넣었다.

「文壇の天窓を開け放って、爽やかな氣分を入れ」³⁸⁾

당시 1910년 「白樺」 창간 시 동인들은 학습원 출신으로 메이지·다이쇼기의 일본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겪어졌던 부르주아 상류계층의 자제였다. 그들은 자라온 가정에서의 생활 여유와 서양적 교육으로 합리적, 윤리적 사고방식을 습득한다. 그리고 서양문학의 메테를링크, 오이켄 특히 톨스토이의 인도주의에 경도되고, 기독교의 박애주의 등의 서구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혜택 받은 환경 속에서 자란 그들은 도덕의 순수를 믿고 인상파나 르노아르의 회화를 동경하는 예술가들이었다.

특히 「白樺」는 ‘십인십색’의 자유로움을 표방하며 개성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37) 정인문, 『일본근대문학의 재인식』, 영한도서출판, 2001, p.119.

38) 西垣勤, 『白樺派作家論』, 有精堂選書, 1981, p.76.(재인용)

무샤노코지 사네아Tm(武者小路實篤 : 1885~1978, 이하 ‘무샤노코지’ 라 칭함)는 “자아를 위해 움직여라. 자아를 위해 자신을 죽이는 것은 좋다. 타인을 위해 자아를 죽이는 것은 노예다(自我の爲に動け。自我の爲に自己を殺すのはいい。他人の爲に自我を殺すのは奴隷た)” 라고 「白樺」 제2권 1월호에 명시할 정도로 자아존중을 중요시하였다.³⁹⁾ 이렇듯 「白樺」는 인간의 ‘자아’와 ‘개성’을 존중하며 더 나아가 개인주의를 일보 진전시킨 ‘자아중심주의’를 지향해 갔다. 시가는 강한 자의식의 소유자로 자신의 감수성을 신뢰하였는데, 다음 일기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고독하게 있고 싶다. 혼자 제멋대로이고 싶다. 타인과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다.

自分は孤獨でゐたい。大つぴらに我儘になり、獨りで我儘をしてゐたい。他人と余り口をきくまい。(1912. 3. 12)

자신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타인을 돌아보지 않겠다.

自分の自由を得る為には他人をかへりみまい。(1912. 3. 13)⁴⁰⁾

위와 같은 시가의 강한 자의식은 「白樺」를 통해 더욱 심화되어 자아중심주의 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충실한 자기관찰과 타협을 모르던 시가였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불화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문학의 초기 작품에서 대립적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화해 성립 후 그의 문학은 조화적 경향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또한 아버지와의 화해 배경에 시가의 메테를링크 사상에 감화가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白樺」는 시가의 삶과 문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9) 三好行雄, 『近代の文学4—大正文学の諸相』, 有斐閣双書, 1977 p.4.(재인용)

40) 竹盛天雄, 위의 책, 1978, p.64.(재인용)

III. 아버지와의 갈등

1. 교토(京都) 사건

『和解』에 나타나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살펴보면 먼저 교토사건을 들 수 있다. 재작년 봄 아버지가 큰 여동생과 신혼인 준키치 부부가 살고 있는 교토에 놀러온다. 당시 아버지는 일부러 그 전에 일어났던 아들과의 불화를 해소할 목적으로 교토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준키치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회피하고 이 일을 계기로 부자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당시 틀어진 부자 사이를 회복하고자 먼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화해를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아버지의 화해 의중을 알 수 있다.

재작년 봄이었다. 내가 교토에 살고 있을 때, 그 전에 일어났던 두 사람 사이의 화해의 모드를 조성할 목적으로, 아버지는 나의 첫째 누이동생을 데리고 교토에 놀러 왔다. (중략) 게다가 아내는 아버지가 우리들을 데리고 이제부터 나라, 오사카를 거닐 예정이라는 말을 했다.

一昨年の春だった。自分が京都に住んでいる時に、その前に起った二人の間の不和の後に或る和ぎを作る目的で、父は自分の一番上の妹を連れて京都に遊びに来た。(中略) 尚妻は父が吾々を連れてこれから奈良大阪を歩く心算でいることを話した。(pp.18~19)

아버지께서 직접 구두로 화해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지만, 아들이 있는 교토까지 먼저 찾아와 함께 여행을 하겠다는 것은, 아들과의 화해의사를 예들러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계속된 불화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화목한 부자간 사이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 때문에 아버지는 준키치가 자신의 의중을 파악해 화해할 것이라 여기고 미리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강한 자의식의 소유자인 준키치는, 아버지의 의사를 거부하며 만남을 회피한다. 당시 준키치의 심정을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는 아버지에게 불쾌감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만나는 것은 더욱 싫었다. 나는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대한 불쾌감을 억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태연한 얼굴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만일 그런 것을 해서 나를 속이고 제삼자를 속인댔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했다. 뒤에 남는 것은 지금의 불화보다도 더욱 나쁜 것이다. 지금의 불화에 더욱더 나쁜 것을 덧붙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自分は父に不愉快を与えるのは好まなかった。然し会ふのは尚厭だった。自分がその時の現在に持っている父に対する不快を押し包んで何気ない顔で話する事は逆も堪えられなかった。若しそんな事をして自分を欺き、第三者を欺きしたところで何になると思った。後に残るものは今の不和よりも尚悪いものだ。今の不和に更に尚悪いものを付け加えるばかりだと考えた。(p.18)

위의 인용문에서 준키치는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더 큰 불화를 초래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즉 자신의 의지를 동반하지 않는 화해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선적인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에서, 준키치의 강한 아집을 엿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가는 「白樺」의 멤버로 인간의 ‘자아’와 ‘개성’을 존중하며 개인주의를 일보 진전시킨 ‘자아중심주의’를 지향해 갔다. 이러한 「白樺」의 정신은 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 아버지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가가 추구하는 자아중심주의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어디까지나 아집에 불과하며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결국 준키치의 강한 아집 때문에 애써 아버지가 만든 화해의 기회가 무산되어 버리고 만다. 이처럼 아버지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거부하는 준키치의 모습에서 앞으로 부자간 갈등의 심화는 예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 일이 있고 반년 정도 지나서 준키치 부부는 아자부 친가를 방문한다. 아버지는 당시 준키치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사죄를 바라지만 준키치를 이를 거부한다. 결국 준키치는 아자부 친가의 출입을 금지당하고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한다. 다음의 두 사람의 대화에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아버지는 “네가 이 집을 출입하는 것은 조금도 꺼릴 것이 없다. 그것을 나는 기꺼이 허락한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어떠냐.” 고 말했다.

“교토의 일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지금도 전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드나들지 말거라.”

“그렇습니까?” 나는 인사를 하고 나왔다. 나는 이미 불끈 화가 나 있었다.
 父は、「貴様がこの家へ出入りする事は少しも差支えない。それは俺は喜んで許す。然しきまりをつけねばならん事は明瞭けたいが、どうだ」と云った。
 「京都の事はお気の毒なこととは思っています。あの頃とはお父さんに対する感情の余程変わっています。然しあの時わたしがあした事は今でも少しも悪いとは思っていません。」こう答えた。
 「そうか。それなら貴様はこの家へ出入りする事はよして貰おう」
 「そうですか」自分はお辞儀をして起って来た。自分はもうカットしていた。(p.21)

아버지는 준키치에게 거리낌 없이 친가출입을 하도록 권하면서 유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것은 아들과의 원만한 대화를 위한 아버지의 배려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아들이 교토의 일을 사죄하여 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준키치는 아버지의 그러한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준키치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서의 권위 문제이며 규범 문제였다.⁴¹⁾ 결국 아버지는 준키치에게 아자부 친가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엄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준키치는 자신의 오만한 언행에 대한 반성의 마음보다는 친가 출입을 금지당한 불쾌감이 더 앞선다.

이 교토사건을 기점으로 아버지와 준키치 갈등은 그 골이 깊어지면서 아자부 친가 출입을 금지당하면서 갈등상태는 최고조에 달한다. 이러한 아버지와 의 갈등은 준키치에게 엄청난 정신적 부담감을 주는 요인이 된다.

2. 결혼 문제

『和解』에서 준키치의 결혼으로 인한 아버지와 의 갈등 양상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부자간 대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아버지와 의 불화의 원인은 나의 결혼이었다.
 その上に妻との結婚が父との不和の最近の原因になった。(p.18)

준키치 부부는 아버지와 의 불화로 얼룩진 결혼 생활로 인해 아내는 신경쇠약

41) 吉田熙生, 「『道草』と『和解』」, 『国文学解釈と鑑賞』, 至文堂, 1982, p.71.

을 앓고 준키치 자신도 불쾌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일이 원인이 되어, 준키치 부부는 이주 생활을 결심하게 된다. 신혼인 준키치 부부를 불안으로 몰고 있는 결혼 문제의 원인을 실제 시가의 당시 상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가는 교토에 거주하던 1914년 12월에 자신의 문학 동료인 무샤노코지의 이종사촌인 사다코(康子)와 결혼하게 되는데, 사다코는 이미 한 번 결혼한 과거가 있었다. 아버지 나오하루는 격렬하게 반대를 한다. 앞서 말하였듯이 시가의 아버지는 일본 자본주의 사회의 신흥 부르주아로서 성공한 사업가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아버지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면이 강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때문에 인륜대사인 아들의 결혼도 이 같은 실리적인 면을 추구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초혼인 자신의 아들에게 재혼인 며느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결혼 상대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가의 결벽스런 윤리관으로 비추어 보아, 이 같은 이해타산에 얽매이는 결혼은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시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반대에도 끝까지 결혼을 강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시가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다. 이러한 충돌을 계기로 시가는 1915년 혼인 신고서를 내면서 志賀家로부터 스스로 호적을 정리하게 된다.⁴²⁾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자로서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부자간 인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시가의 축복받지 못한 결혼은, 이후 신혼인 시가부부에게 불안정한 삶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和解』에서 준키치는 아버지로부터 아자부 친가 출입을 금지당하는 당일, 분개하여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서려고 한다. 그런 아들을 계모는 머물고 가라며 만류하고, 아내도 계모의 설득에 동조한다. 그러자 준키치는 아내를 침상으로 밀어내는 행동을 한다. 이것은 다분히 충동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따라주지 않는 아내에 대한 야속함의 표출이지만, 그 행동에는 또 다른 내면의식이 잠재되어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만약 내가 아버지가 하는 말을 고분고분 듣는 사람이었다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42) 백수화, 「시가나오야(志賀直哉)의 화해론: 죽음의 인식을 통한 갈등해소를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2004, pp.25~26.(참고)

「若し俺がお父さんの云う事をはいはい諾く人間だったらお前とは結婚してやしなかったぞ」

(p.23)

준키치 자신이 여느 자식들처럼 부모의 말을 섬기는 아들이라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발언은, 그의 결혼을 반대했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세상눈으로 비추어 보면 자신과 아내의 결혼은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결혼을 강행했기에, 아버지와 불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위치와 걸맞지 않는 아내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준키치의 발언을 통해, 아버지와 갈등에 자신의 결혼 문제도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和解』에서 결혼문제로 인한 아버지와 갈등은 단편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준키치는 결혼을 통해서, 다음에 고찰할 자식의 죽음과 탄생을 경험하며 한 일가의 가장이 되어서야 진정으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준키치의 결혼 문제는 가볍게 읽고 넘길 수 없다고 생각된다.

3. 장녀 사토코(慧子)의 죽음

『和解』에서 장녀 사토코(慧子)의 죽음은 부자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자부 친가 가족들에게도 불쾌감을 갖게 된다. 실제로 1916년 6월 시가에게는 장녀 사토코가 태어나지만, 생후 76일 만에 죽고만다. 장녀의 죽음에 대한 경위는 『和解』에서,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 만큼 그 비중이 상당하고, 아버지에 대한 대립감정도 그 만큼 명확하게 나타난다. 먼저 장녀의 죽음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등, 가슴, 다리 순서로 썰 새 없이 바뀐 주어도 갓난아기의 몸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다. 결국에는 우리들의 피부에도 1초도 대고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것을 그대로 썰 새 없이 둘러쌌다. 이미 절망적이 되어 있던 나는 불구가 되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들을 돌이켜볼 기분이 아니었다. 어쨌든 죽게 하고 싶지 않았다. (중략) 갓난아기의 힘은 점점 약해졌다. 그래도 여전히 그 약한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저항하려 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갓난아기는 이제 호흡을 멈추고 말았다.(중략)갓난아기의 입과 코에서 검고 질척질척한 액체가 솟아나듯 흘러나왔다. 그것이 창백해진 양볼을 굽게 지나 목덜미 쪽으로 흘러내렸다. (중략) 아내는 격하게 울며 쓰러졌다. K코 씨는 아내를 일으켜 자기 가슴에 그 얼굴을 부둥켜안고, “사다코씨 진정하세요. 네에 진정하세요.” 라고 했다. K코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울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울었다.

背中、胸、足順繰りに絶え間なく更えていても赤児の身体は少しも温まらなかった。仕舞には吾々の皮膚では一秒でも触れていられない熱さのままでどしどし包んだ。もう絶望的になっていた自分は不具になろうが、後でどんな事が起ろうが、それらを省みる気はなかった。ともかく死なしたくなった。(中略) 赤児の力は段々弱々しくなって来た。それでも尚その僅かな力で出来るだけの抵抗をしようとした(中略) そしてそうしている内に赤児はもう息をしなくなった。赤児の口と鼻から黒いどろどろの液体が沸き出した。それが真白くなった両の頬を幅広く項の方へ流れ落ちた。(中略) 妻は烈しく泣き倒れた。K子さんはそれを起し、自身の胸へ其顔を抱きしめて、「健子さん。しっかり遊ばせ。ねえ。しっかり遊ばせ」と云った。K子さんの眼からも涙が流れていた。自分は泣いた。実母に死なれた時のようになかった。(pp.47~48)

위의 인용문은 불의에 불합리한 죽음에 휩쓸린 갓난아기의 애처로운 모습과 필사적으로 살리고자 애쓰는 아버지의 모습이 맞물려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준키치는 장녀의 죽음을 통해서, 어렸을 적 친어머니를 잃었을 때와 같은 원초적인 슬픔을 경험한다. 이것은 친어머니와 장녀의 죽음을 동일시하면서 혈연의식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준키치는 아자부 친가와와의 혈연관계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준키치는 아자부 친가와와의 혈연공동체 복귀를 회구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장녀를 도쿄의 가족 묘지로 이장하는 모습은, 친가와와의 혈연공동체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내면의식의 발로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버지는 장녀를 가족 묘지에 이장하는 것을 거부하며, 아비코에 있는 절에 묻을 것을 지시한다.

그날 아침 아카사카의 숙부로부터 관을 아카사카로 옮기라는 전보가 왔다. 아버지가 아자부의 집으로 옮기는 것을 거절한 것이리라 생각했다. 나는 가슴속에서 불쾌감을 느꼈다.

その朝赤崎の叔父かから、棺は赤崎へ運ぶようと云電報が来た。父が麻布の家へ運ぶ事を拒んだのだと思った。自分は腹から不愉快を感じた。(pp.51~52)

아버지는 준키치와 화해하지 않고 죽은 손녀를 가족 묘지로 묻는다는 것은, 불

확인 아들과의 관계를 그대로 용인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손녀의 이장을 거부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준키치는 자신과의 불화로 인해 죽은 손녀마저 거부하는 아버지의 매몰찬 행동에 심한 불쾌감이 앞선다. 더 나아가 아버지가 죽은 손녀를 가족 묘지로 이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즉, 자신을 혈연공동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겼기에 그 분노는 더욱 컸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준키치는 아버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녀의 도쿄 가족 묘지의 이장을 강행하면서 아버지와의 불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앞서 말하였듯이 준키치는 장녀의 죽음으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자부 가족들에게도 불쾌감을 갖게 된다.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만일 모두에게 아버지와 나와 관계에 갓난아기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다면 갓난아기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을 무릅쓰고 갓난아기의 도쿄행을 허락한 것은 아무리 후회해도 끝이 없지만, 이제 와선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중략) 그런데 아버지가 아자부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거절한 데다 갓난아기의 어린 숙모들과 증조할머니에게 “아무도 아카사카에 안 간다.” 라고 했다는 것을 듣고, 나는 가슴속 깊이 분노가 치밀었다.

自分にはこういう考があった。若し皆に父と自分との関係に赤児を利用する気がなかったら、赤児は死なずに済んだのだ。素より自分が気が進まないのを折れて赤児の東京行きを承知した事は悔いても悔いても足りない気がした。今はもう仕方がなかった。(中略)ところが父は麻布の家へ連れて行く事を拒んだ上に赤児の小さい叔母ともや曾祖母に、「皆も赤坂へ行く事はない」と云ったと云う事を聴いて、自分は腹の底から腹を立てた。(pp.51~52)

준키치는 아자부 가족들이 장녀를 자신과 아버지와의 화해의 매개체로 이용하려고 했기에 희생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가족들은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장녀를 도쿄에 아자부 친가로 데려가는 무리한 이동을 감행한다. 그것은 도쿄에 계신 아버지에게 손녀를 보여드리면서, 온화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가족들의 고심책이었다. 준키치는 이러한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이상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와 같은 가족들의 생각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결국 마음이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쿄행을 허락하고 그 일이 원인이 되어 장녀는 죽음을 맞는다. 이에 대해 준키치는 불가항력의 일이라 납득하면서도 장녀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깊은 아쉬움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친가 가족들에게 불쾌감을 갖

게 되는 계기는 장녀가 죽었을 때 위문하러 오지 않았다는 야속함에 있었다. 그것은 장녀의 죽음에 대한 원인과 더해져 더욱 준키치를 분노하게 하고 외롭게 하였을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서 당시의 준키치의 심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아이로서는 가장 가까운 혈육인 아자부 집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웬지 불쌍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도 불만스러운 기분이었다.

この児の爲めにもっと近い血縁の麻布の家の人が一人もないことは何となくこの児の爲めに可哀そうな気がした。そして自分物足りない気がした。(p.47)

장녀의 죽음 이후 준키치와 아버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친가 가족들에게도 불쾌함을 느끼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애를 회구하는 내면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준키치는 장녀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혈육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회구하고 있다. 즉 아버지와 불화 해소를 무의식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⁴³⁾ 때문에 장녀의 죽음 전후 아자부 가족들의 무관심에 대해 섭섭해 하며, 아자부 가족들에게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아자부 친가와 혈연공동체에 대한 집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장녀를 잃은 혈연적 상실감은 직업작가인 준키치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생활뿐만 아니라 창작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43) 山田有策, 위의 책, p.81.

IV. 자아의 성숙

1. 차녀 루메코(留女子)의 탄생

준키치는 장녀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비애감에 빠지고, 아버지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아내의 임신으로 점차 조화적인 기분으로 변해간다. 준키치는 이러한 조화적 기분을 바탕으로 아버지와의 화해를 위한 내적준비를 갖추어간다. 그리고 차녀의 출산 시 의사의 부재로 인해 아내의 출산을 돕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을 보고 감동한다.

나도 눈물겨운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에 감사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내 마음이 분명 감사드릴 대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느꼈다.(중략)출산, 그것에는 추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중략) 아내의 얼굴에서도 모습에서도 추함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自分も涙ぐましい氣持をしながら首肯いた。自分には何かに感謝したい氣が起こった。自分は自分の心が明かに感謝をささぐべき對象を要求している事を感じた。(中略) 出産、それには醜いものは一つもなかった。(中略) 妻の顔にも姿勢にも醜いものは毛程も現われなかった。總て美しかった。(p.71)

준키치는 출산의 장면을 목도하고 가슴속 깊이 기쁨을 느끼며, 끝없이 샘솟는 흥분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에 관해서 다케모리 텐유(竹盛天雄)는 ‘출생’, 생식 그 자체, 그러한 섭리에 대한 귀의임과 동시에 육친적혈연적인 것으로써 의식되는 생명에 대한 감사라고 추정하고 있다.⁴⁴⁾ 이러한 다케모리의 지적에 공감하며 야마다 유사쿠는 차녀의 출산으로 인해 준키치는 ‘재차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로서의 자각이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으로 이어지는 집의 혈맥에 대한 확인이라고 논하고 있다. 그리고 장녀의 죽음과 차녀의 탄생이라는 명암의 드라마야말로 자신을 화해로 이끄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⁴⁵⁾ 이렇게 준키치는 차녀의 탄생으로, 자신과 아자부 친가와와의 혈연적 연계를 확인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것은 그동안

44) 竹盛天雄, 위의 책, 1978, p.78.

45) 山田有策, 위의 책, p.82.

아집에 사로 잡혀 아버지와의 대립을 심화시켰던 준키치의 미숙한 자아가 성숙 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준키치는 차녀의 탄생을 계기로 자아의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장녀의 죽음으로 고통을 겪었던 준키치는, 차녀의 탄생을 계기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이 같은 가장의식을 통해, 자신과 마찬가지로 한 일가의 가장인 아버지의 위치를 돌아보게 된다. 즉, 준키치는 아버지와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되면서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준키치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되면서,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감정의 응 어리를 해소해가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 쪽에서 마음속 깊은 증오를 노골적으로 표현해 왔을 경우, 그래도 내가 침착하게 지금과 같은 마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를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다. 교토에 있던 시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사촌이 ‘당신의 큰 사랑으로 후일 아버님을 너그러이 감쌀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편지로 보낸 일이 있었다. (중략) 나는 지금 그때 일을 떠올렸다. (중략) 진심으로,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도 아버지가 설령 어떤 태도를 취하더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어떤 여유로써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는 일일 것이다.

自分は今、父を憎んでいない。然し父の方で心からの憎しみを露骨に現わして来た場合、それでも自分は穩かに、今の氣持を失わずに父に對する事が出来るだろうかと氣づかれた。京都にいた頃、高等學校に通っていた從弟から「貴方の大きな愛が他日父君を包み切る日のある事を望みます。」とこんな事を手紙で云って來た事があった。(中略)自分は今その事を憶い出した。(中略)心から、そして努力なしに父が假令どんな態度をとろうとそれに惹込まれず、或る余裕を以って引退って來られればこの上ない事である。(pp.84~85)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준키치의 성숙된 내면의식을 엿볼 수 있다. 준키치는 오랜 기간에 걸친 불화로 인해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응어리졌던 미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격노한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그전의 준키치의 모습과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준키치는 교토에 거주하던 당시 사촌에게 아버지를 ‘큰 사랑’으로 대할 것을 권유받은 적이 있지만 그때는 그것을 수용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사촌에게 “큰 사랑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大きな愛という言葉の内容を本統に経験した事もない人間が無暗に他人にそんな言葉を使うものではない)”라고 하

며 역정을 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사라진 지금은 그때의 ‘큰 사랑’이 떠오른다. 준키치는 아버지와 자신을 ‘큰 사랑’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의식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준키치의 내면에 아버지에 대한 화해의 의지가 충만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준키치는 차녀의 탄생을 계기로 한 일가의 가장으로서 자리 잡게 되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아버지를 새롭게 관조할 수 있게 되고, 이 같은 성숙된 자아를 바탕으로, 아버지와 양금을 스스로 털어내고 있다. 또한 혈육애를 바탕으로 아버지와 화해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이 같은 내면의식의 변화는 준키치로 하여금 조화적 심경을 유도해내고, 아버지와 화해를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자기 반성적 사고

『和解』 초반에 준키치는 극단적인 예고이즘을 관철하며, 자신과의 화해를 위해 일부러 교토를 방문했던 아버지와 만남을 거부한다. 그러나 점차 아버지에 대해서 불쾌감과 함께 동정을 느끼는 양면적 의식이 공존한다. 결국은 자신이 행한 과오를 돌이켜 보면서, 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하게 된다. 이 같은 준키치의 의식변화는,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성찰하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의 모습은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확히 11년 전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그 녀석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고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에게 대해 보였던 어떤 태도를 생각하면 나는 언제나 오싹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그런 태도를 당한 사람이 이제껏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그런 태도를 당했을 경우를 상상만 해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말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외로움을 느꼈다.

丁度十一年前父が「これからはどんな事があっても決して彼奴の為めには涙は溢れない」と人に云ったと云う。そして父がそう云い出した前に自分が父に対して現わした或る態度を憎うと自分は毎時ぞっとした。父として子からこんな態度をとられた人間がこれまで何人あろう。自分が父として子にそんな態度を取られた場合を想像しても堪えられない気がした。父がそう云ったと聞いた時

に父の云う事は無理でないと思った。そして自分も孤独を感じた。(p.17)

준키치는 과거 아버지에게 행한 자신의 과오를 자책하면서 허탈해하고 있다. 절대적 자기긍정의 소유자인 준키치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의식변화이다. 준키치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해 가고 있는 것이다. 반성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대립으로 일관했던 아버지에게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조화적 심경으로 아버지를 포용할 수 있는 도량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준키치의 인품이 한 단계 도약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숙한 자아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준키치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성숙한 자아 세계를 형성하고, 이것은 아버지와의 화해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준키치의 반성적 사고는 정신 상태이므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성숙된 의식 변화의 표출이며 조화적 심경을 발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이므로,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和解』를 집필할 당시 시가의 조화적 세계관에 토대가 된 내적인 요인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시가는 『和解』를 집필하던 30대 중반을 넘기면서 종래의 대립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조화적 세계관을 새롭게 정립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인생 최대의 난제였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조화적 세계관을 굳히게 된다. 조화적 세계관의 확립에는 대자연과의 호흡, 고미술 감상, 메테를링크 사상을 통한 내적 작용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메테를링크의 ‘운명에 적극적·능동적 자세로 대처하며 불행한 운명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상이 집약된 『智慧と運命』은 아버지와의 화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가는 1905년 학습원 고등과 시절 처음으로 우에다 빈(上田敏)으로부터 메테를링크에 대해 접하게 된다.⁴⁶⁾ 시가가 메테를링크의 사상적 영향을 가장 깊이 받게 된 시기는 창작활동의 휴지기에 해당하는 1915년 아비코에서 거주하던 시절이다. 당시 시가는 메테를링크의 『智慧と運命』를 읽고, 『續作余談』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메테를링크의 「지혜와 운명」에 감동하고, 어리석음으로부터 오는 오해와 고립으로

46) 菊田茂男, 위의 책, 1965, p.101.

인해 비극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를 깨우쳤고, (중략) 「지혜와 운명」은 오랫동안 좋지 않았던 아버지와 관계에도 매우 좋게 작용했다.

「メーテルリンクの『智慧と運命』に感心し、愚さから来る誤解や意地張りで悲劇を作る事が如何に下らないかといふ事を思ひ、(중략)『智慧と運命』は永い間よくなかった父との関係にも大変よく働いた。」⁴⁷⁾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메테를링크의 『智慧と運命』이 시가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智慧と運命』에 나타난 ‘운명에 적극적·능동적 자세로 대처하며 불행한 운명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메테를링크 사상은 당시 창작 활동의 휴지기를 보내고 있던 시가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아버지와 불화로 인해 자신의 주변을 부정적으로 응시하던 시가는 메테를링크 사상을 통해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시가는 대립적 사고를 순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을 조화적으로 관조하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처럼 메테를링크 사상은, 시가의 자아의 성숙을 기하는 중요한 내적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和解』의 주인공인 준키치는 시가 자신을 투영한 존재이므로 자신의 언행을 돌이켜보며, 스스로 적극적으로 반성적 자세를 견지하는 모습에서, 앞서 언급한 메테를링크 사상의 감화를 엿볼 수 있다. 준키치는 자신의 과오를 성찰하고,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 화해의 의사를 전달한다. 이러한 모습은 교토사건 때, 아버지와 만남을 회피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제까지의 일이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몹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것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그것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これまでは、それは仕方なかったんです。それはお父さんには随分お気の毒な事をしていました。(中略)然し今まではそれも仕方なかったんです。只、これから先までそれを続けて行くのは馬鹿気ていると思うんです。」 (pp.92~93)

지금껏 자신이 행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아버지께 사죄를 드리며, 진실한 심정을 토로하는 준키치의 모습에서, 자신의 의지만을 관찰했던 이기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성적 사고를 통해 깨달은 준키치의 진실한 사죄를 아버지 역

47) 本多秋五, 「七. 沈黙の時代」, 『志賀直哉(上)』, 岩波新書, 1990, p.215.(재인용)

시 같은 마음으로 화답한다.

“실은 나도 점점 나이는 먹고 너와 이제까지와 같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것은 정말이지 괴로운 일이었다. 진심으로 너를 미워했던 적도 있다. 그러나 몇 해 전 네가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재삼 꺼냈어도 듣지 않았다. (중략) 하는 수 없이 허락하긴 했지만 나는 너를 내보낼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도.....”

「実は俺も段々年は取って来るし、貴様とこれまでのような関係が続けて行く事は実に苦しかったのだ。それは腹から貴様を憎いと思った事もある。然し先年貴様が家を出ると言い出して、再三云って諾かない。(中略)仕方なく承知はしたものの、俺の方から貴様を出そうと云う考は少しもなかったのだ。それから今日までの事も.....」 (p.93)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토로하며 지난날을 반성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역시 아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숨김없이 이야기한다. 결국 두 사람은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화해를 이룬다. 아버지와 화해는 준키치의 끊임없는 반성적 사고가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성적 사고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되고, 먼저 아버지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준키치의 모습에서 그의 성숙된 자아를 엿볼 수 있었다.

3. 「夢想家」 집필을 통한 자아성찰

『和解』에서 준키치는 아버지와 오랜 불화를 소재로 한 장편 「夢想家」 집필을 몇 차례 시도하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 「夢想家」 집필의 거듭된 난항 속에서 준키치는, 자신의 또 다른 내면 의식을 자각하게 되면서 서서히 성숙된 모습으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재조명하게 된다.

(중략) 6년 전 내가 오노미치에서 독신 생활을 하던 전후의 아버지와 나와의 일에 대해 쓰려고 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 꽤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간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여러 모로 뒤엉킨 복잡한 감정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그 원인은 오히려 불화에서 오는 증오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입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비교적 단순한 기분으로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나쁘게 말했다. 그러나 글로 쓰는 경우에는 웬지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작품으로 아버지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에게도 죄송스럽고 더구나 그 이상을 나의 작품이 그것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中略〕六年前、自分が尾の道で独住いをしていた前後の父と自分との事を書こうとした。自分は父に対して随分不快を持っていた。それは親子という事から来る逃れられない色々なよれまじった複雑な感情を含んでいたにしろ、その基調は尚不和から来る憎しみであると自分は思っていた。自分は口でそれを話す時比較的簡潔な気持で露骨に父を悪くいった。然し書く場合何故かそれが出来なかった。自分は自分の仕事の上で父に私怨を晴すような事はしたくないと考えた。それは父に気の毒だし、尚それ以上に自分の仕事がそれで穢されるのが恐ろしかった。

(pp.9~10)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준키치는 부자간의 오랜 불화로 아버지에게 불쾌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러한 심정을 글로 표현하려는 순간 주저함을 느낀다. 그것은 타인에게 거리낌 없이 아버지를 비난할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다. 그러나 「夢家」를 집필하려는 순간, 자신의 의중과는 달리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 불시에 「夢家」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는 치기 어린 작품이 되어서, 자신의 작가적 자존심이 손상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동시에 자신의 작품으로 상처 입을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든다. 결국 그 작품이 불러일으킬 파장을 떠올리며 더 이상 집필하지 못한다. 여기서 준키치가 「夢家」 집필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심경을 자각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싶다. 부자간 불화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불쾌감으로 일그러진 증오가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夢家」를 집필하면서 확연하게 정의내리지 못하는 또 다른 심경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심경의 정체를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 원한을 품고 있는 내가 내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한편으로 진정으로 아버지를 동정하고 있는 내가 함께 살고 있었다.

私怨を含んでいる自分が自分の中にあつたのである。然し、それが全体ではなかつた。他方に心から父に同情している自分が一緒に住んでいた。(p.17)

준키치는 자신의 내면의식에 어느덧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함께 동정이 공존하고 있음을 자각한다. 때문에 「夢家」 집필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준키치에게 심적 괴로움을 주지만, 그와 동시에 부자간 관계를 재조명하게 된다. 준키치는 「夢家」 집필의 거듭된 난항 속에서, 그 일환으로 작품의 구성 중 하나인 할머니의 임종을 구상하게 된다. 준키치는 처음에는 작중

의 청년과 아버지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지만, 집필 도중 자신의 심정을 내포하게 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경우) 아버지와 나 사이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불쾌한 사건들을 노골적으로 씬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싶었다.

(その他色々そう云う場合) 父と自分との間に実際起り得る不愉快な事を書いて、自分はそれを露骨に書く事によって、実際にその起る事を防ぎたいと思った。(p.53)

여기에서 준키치의 「夢家」 집필 의도가 확인해진다. 준키치는 「夢家」 집필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버지와 대립 상황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현실에서 부자간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희구하는 것이다. 즉 「夢家」는 준키치 자신의 모습을 투사시킬 수 있는 일종의 가상현실이라고 생각된다. 그 가상현실에서 준키치는 몇 차례 아버지와 불화를 파국으로 몰고 가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현실에서 그 같은 비극을 막고자 하는 심경이 일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작품에서 그 같은 준키치의 심경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뜻밖에 내게 떠오른 것은 그 싸움의 절정에 이르러, 갑자기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장면이었다. 이 뜻밖에 튀어나온 장면은 내 자신조차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ところが不意に自分にはその争戦の絶頂へ来て、急に二人が抱き合って烈しく泣き出す場合が浮んで来た。この不意に飛出せて来た場合は自分でも全く想いがけなかった。自分は涙ぐんた。(p.53)

준키치는 「夢家」에서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전개하던 도중 돌연 두 사람의 화해의 순간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것은 준키치 또한 예상치 못한 흐름이지만,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인다. 준키치의 내면의식은 아버지와 화해를 갈망하는 자신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시가는 『稻村雜談』에서 「夢」에 대해 “나는 한편으로는 「夢」에서 예지를 한다든지, 오늘 이 사람을 길에서 자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만난다든지 하는 경험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신과는 별도의 것으로 풀이하고,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⁴⁸⁾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추측해 볼 때 시가에게

48) 饗庭孝男, 「志賀直哉論」, 『日本文学研究大成, 志賀直哉』, 株式会社国書刊行会, 1975, p.341.(재인용)

「夢想」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회구할 수 있는 세계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미래의 암시를 받고 있다고 여겨진다. 즉 준키치가 「夢想」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갈망하는 아버지와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일종의 자기주문과 같은 것이라 여겨진다. 때문에 「夢想家」라는 가상현실을 통해서 아버지와 대립하면서 그 같은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날 시, 최악의 사태를 암시받고 있는 것이다. 준키치는 이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夢想家」작품을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면서 결국 아버지와 화해 의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오오쿠보 데루오(大久保定典)는 시가의 「夢想」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몽상>은, 시가의 내부자아에서, 그 자아가능성의 영역의 넓이를 ‘암시’하는 것 이지만, 그것은 또 주체적인 존재 근원에 대한 자아의 침묵을 지향해서 근접하면 할수록, 객관적인 세계인식의 자세로 해방되어지는 것이다.(중략)

<夢想>は、志賀の自我内部で、その自我可能性の領域の広さを「暗示」するものであるが、それは又、主体的な存在の根所へ自我の沈黙を目指して近づけば近づける程に、客観的な世界認識たる広大な視座へと解放されるものでもあった。(中略)49)

오오쿠보의 논지처럼, 준키치는 「夢想家」를 집필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자간의 대립 상황을 구조화하면서 객관적으로 부자간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夢想家」 집필을 통해서, 이제껏 자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내면의식을 목도하게 된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동정을 넘어선 진실한 화해를 회구하고 있는 자신의 또 다른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모는, 준키치의 성숙된 자아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夢想家」라는 가상현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준키치는 「夢想家」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는 거듭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여과하고 순화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준키치는 자신이 진정으로 아버지와의 화해를 바라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49) 大久保定典, 「『和解』試論」, 『日本文学研究大成-志賀直哉』, 株式会社国書刊行会, 1985, p.236.

V. 조화적 심경

1.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인식

준키치가 아버지와의 대립구도를 벗어나 조화적 심경으로 전이할 시, 표면적으로 할머니의 병환이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준키치가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연장선에 나타날 아버지와 자신의 파국을 냉정하게 관조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준키치에게 아버지와의 불화를 종식시키고 싶은 내면 의식을 자각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러한 내면 의식은 준키치를 조화적 심경으로 이끌고 아버지와의 화해 기류를 형성하는데 일조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시가는 어렸을 때부터 양친의 손을 벗어나, 조부모의 무조건적인 애정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덕분에 조부모를 가장 신뢰하였고 결과적으로 시가는 할아버지에게는 부정(父情)을, 할머니에게는 모정(母情)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하였던 할아버지의 죽음에서 큰 충격을 받는다. 이러한 연유로 홀로 남겨진 할머니에게 더욱 애정을 가지게 되고 할머니의 신변에 매우 예민해진다. 시가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할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죽음 이후 할머니의 존재 의미는 더욱 중요해진다.

시가는 「白樺」 창간 후 입대를 하게 되면서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군대생활을 통해서 직업작가를 지향하는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관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희망적인 상황이었다. 때문에 아버지는 입대 9일 만에 영구 귀가한 시가를 냉담하게 대한다. 그러나 여전히 할머니만은 변함없는 애정으로 환영해주었다.⁵⁰⁾ 1912년에 발표된 『祖母のために』에 나타난 다음의 구절은 할머니에 대한 시가의 애정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 모든 친구가 나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나는 종종 있다.(중략) 만약 누군가를 방문이라도 하면 꼭 험박당한 것처럼 나는 불쾌한 말이나

50) 김환기, 위의 책, 2003, pp.34~39.

행동을 해 버린다. 참을 수 없는 고독과 분노를 느껴 헤어지고 온다. 그러면 꼭 할머니를 생각한다.

-繪ての友達が自分に敵意を持つと、かう思ひ込む事が私にはよくある。(中略)若し誰かを訪ねでもすれば迄度脅迫されるやうに、私は不快な事を云つたり仕たりして了ふ。堪へられない孤独と腹立たしさを感じて別れて来る。と、必ず祖母を思ふ。51)

『祖母のために』 발표를 전후하여 시가는 창작 활동에 매진하지만, 아버지를 비롯한 주변 친지들에게는 그로 인해 비난을 받는다. 또한 강한 자의식의 소유자인 시가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교우관계 또한 그리 원만하지 않았음을 예측할 수 있다. 때문에 할머니의 변함없는 손자 사랑은 시가에게는 더 없는 위안이 되고, 할머니에 대한 애착을 더욱 증폭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의 심신이 쇠약해질 때마다, 시가는 더욱 불안해하고 걱정하였던 것이다. 시가의 할머니의 건강에 대한 염려는 다음 일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자연을 신이라고 하기보다, 자연 법칙에 변측을(혹은 불공평) 바라는 때에 나는 신을 요구한다. 운명이나 자연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신이라 하는 경우에만, 단순한 머리로 마음 편히 믿을 수 있다. 만약 할머니의 병세가 더욱 나빠지게 되면 나는 곧장 그러한 신을 만들어 믿고 싶어진다.”

「自然を神とするより、自然の法則に變則(或は不公平)を望む時に自分は神といふ事を要求する。運命とか自然とかを變へる力のあるものを神とする場合にのみ、單純な頭で心やすく信ずる事が出来る。祖母でも悪くなると自分は直ぐさういふ神を作って信じたくなる。」(「日記」明治四四・1・16)52)

『和解』에서도 준키치의 할머니의 대한 애정은 여과 없이 나타나 있다. 『和解』의 서두에서 준키치는 죽은 장녀의 1주기에 성묘를 하고 나서, 아자부 친가에 할머니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한다. 친가 출입이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모의 음성을 통해서라고 할머니의 심신 상태를 살피고자 함이다. 정작 준키치는 할머니의 안부를 확인하자,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가속화 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를 거둬 확인하면서, 외출 시에만 할머니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준키치는 할머니와 자신의 교류를 아버지와의 불화와는 별

51) 池内輝雄, 위의 책, 1976, p.219.(재인용)

52) 伊沢元美, 「志賀直哉のリアリズム」, 『志賀直哉』, 有精堂, 1960 p.112.

개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친구 사람들에 대해 답답해하지만, 정작 자신 역시 그러한 불쾌한 상황에 수긍하여 행동하고 있음에 분노를 느끼고 된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에 주저함을 느낀 준키치는, 할아버지 묘 앞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교감을 통해서 이 같은 고민을 해소하고자 한다.

나는 잠시 할아버지의 묘 앞을 걷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가 나의 마음속에 되살아나왔다. 그 할아버지에게 ‘오늘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싶은데요.’ 라고 의논하고픈 마음이 생겨났다. ‘만나러 가렴.’ 하고 곧 그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나의 상상이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대답하게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곧 그 말이 떠올랐다. 그것은 꿈속에서 만나는 사람처럼 객관성을 갖고 있었고 나에게는 아무래도 살아계셨을 때의 할아버지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간단한 말 속에 연로하신 할머니에 대한 할아버지의 사랑조차 느꼈다. 그리고 그때 불쾌해진 내 마음은 분명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나의 마음에 되살아나 있는 할아버지에게는 조금도 아버지를 비난하는 기색은 없었다.

自分は祖父の墓の前を少し時歩いていた。その内祖父が自分の心裡に蘇って来た。其祖父に対し自分には「今日祖母に会いに行きたいと思うが」という相談するやうな気持ちが浮かんた。「会いに行ったらよかろう」と直ぐその祖父が答えた。自分の想像が祖父にそう答えさしたと云うにしては余りに明らかに、余りに自然に、直ぐそれが浮かんた。それは夢の中で出会う人のように客観性を持っていて、自分には如何にも生きていた時の祖父らしかった。自分はその簡単な言葉の裡に年寄った祖母に対する祖父の愛撫をさえ感じたやうな気がした。そして其時自分の心は不快から明らかに父を非難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同じ自分の心に蘇っている祖父には少し父を非難する調子はなかつた。(pp.7~8)

위와 같은 인용문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준키치는 아자부 친구의 가장을 할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아자부 친구와 문제가 있을 때 연장자인 할아버지에게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준키치가 의도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준키치는 마음속에 되살아난 할아버지에게 자신을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할아버지의 할머니에 대한 애정은 곧 준키치가 할머니에게 향하는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버지를 비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준키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교감은 준키치의 강한 혈육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때문에 현실에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혈육애는 더 이상 피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생존해 계신 할머니에게 더욱 집착하고 있

다고 보여 진다. 강한 자의식의 소유자인 준키치가 아버지로부터 친가 출입을 금지당하는 굴욕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친가를 방문하는 이유도 오로지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유추해보아도 준키치의 할머니에 대한 애정의 깊이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82세 나이로는 드물게 할머니는 힘있고 생기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八十二しては祖母は珍しい力のある生き々したまなざしを持っていた)’ 이처럼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준키치는 안도했었지만, 점점 쇠약해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준키치는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즉 현실적으로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할머니의 죽음은 준키치에게 있어서 기댈 수 있는 존재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의 죽음과 관련해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조명하게 되는 계기를 맞는다.

실제로 나는 할머니의 죽음을 두려워했다. 할머니의 임종 때 일어날 아버지와 불쾌한 사건을 상상만 해도 그것은 두려운 것이었다.

實際自分は祖母の死を恐れた。祖母の死の場にかかる父との不愉快な出来事を想像しても、それは恐ろしかった。(p.77)

아버지와의 불화로 표면적으로는 준키치와 친가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변함없는 할머니와의 교류를 통해, 준키치와 친가와 관계는 잠재적으로나마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준키치는 할머니의 죽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친가와 관계도 깨끗하게 단절되어 버리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래서 할머니의 죽음을 인식하는 동시에, 아버지와의 파국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그 최악의 사태에 준키치는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즉, 준키치는 훗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가와 혈연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준키치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친가와 혈연공동체를 희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준키치는 이 혈연공동체내에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싶어도, 아버지와의 불화 때문에 불가능하였다. 그것은 또한 준키치의 내부에서 혈연공동체의 통솔자의 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기인한다. 즉, 준키치에게 통솔자로서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대해서 아버지의 교대를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버지가 그 혈연공동체의 통솔자 입에

도, 준키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할머니의 배후에 할아버지에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준키치는 할머니가 쇠약해지는 것을 보고 그 연장선으로 죽음을 연상할지 않을 수 없었다.⁵³⁾ 이 같은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 준키치는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위치를 조명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여태껏 자신의 부모로서 의지하고 있던 할머니의 존재를 아버지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준키치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새로운 가장으로서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가 형성하는 혈연공동체에서 이탈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덕분에 준키치는 조화적 심경이 되어 아버지와 불화를 해소하고, 마침내 화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2. 주위의 배려

준키치가 조화적 심경에 이끌려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는 데에 표면적으로 작용한 것이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었다면, 계모와 친구 M은 이면에서 준키치에게 심적 안정감을 주면서, 아버지와 화해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해주고 있다. 먼저 『和解』에서 준키치를 배려하는 계모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계모는 할머니의 턱이 빠지는 사건이 묘사되는 부분 이후 실질적으로 그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和解』 서두에서는 준키치를 배려하고 있는 계모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준키치의 친가 출입은 금지된 상태로 아버지의 부재시에만 친가를 방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확실한 출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계모와의 의사소통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출타여부를 묻는 준키치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계모 쪽에서 먼저 아버지의 스케줄을 알려주면서, 준키치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즉 계모는 강한 자의식의 소유자인 준키치가 직접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먼저 준키치의 의도를 파악하여 그의 자존심을

53) 山田有策, 위의 책, 有精堂, p.83.

지켜주려고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계모는 준키치와의 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시다는 얘기에 “그렇습니까. 또 나가시겠죠(そうですか。又その内に出てきましょう)” 라고 준키치는 대답한다. 준키치 자신은 아버지와의 출타여부를 확인해야만 친구 출입이 가능한 자신의 위치에 불쾌감을 느끼지만, 본인은 그러한 감정을 애써 숨기고 있다. 그러나 계모는 그런 사소한 한마디에서도 준키치의 불쾌감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준키치의 답변 후 즉각 산욕기에 있는 그의 아내와 집안의 경사인 갓 태어난 차녀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준키치의 불쾌한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는 계모의 심정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계모와의 전화 통화는 자칫 사소한 장면으로 치부될 수 있으나, 계모는 이미 『和解』의 서두에서부터 부자의 중재적인 역할을 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할머니의 덕이 빠져서 병환이 난 후에 준키치의 심정은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계모는 이러한 준키치의 심정을 헤아려서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방문하겠다는 그를 흔쾌히 허락한다. 그러나 결국 들어서자마자 계모를 통해서 돌아가라는 아버지의 뜻을 전달받고 준키치는 흥분한다. 같은 공간에서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자간 신경전을 고려해보면, 자칫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계모는 준키치를 부드럽게 달래면서 현명하게 그 상황을 넘기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서 계모의 마음 씀씀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병환 중일 때 만일 아버지와 충돌이라도 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효가 될 테니” 하고 말했다.

“아버지와 나와 관계와 나와 할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중략)”

“그래. 그것은 잘 알고 있다.”

“어쨌든 가능한 공손하게 아버지께 편지로 부탁드려 보지요.”

“그것이 좋겠구나. 진정으로 공손하게 말아야.”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만나고 올까요.(중략)” 라고 나는 말했다.

“지금은 제발 그만둬라. 너의 기분이 진정되었을 때 공손하게 편지를 써올리렴.”

(중략)

“그럼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도 억지 쓰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공손하게” 라고 어머니는 주의시켰다.

「こう云う御病気の中で若しお父さんと衝突でもするような事があると、それこそ、何よりの不孝になるのですから」と云う。

「お父さんと僕との関係と、僕とお祖母さんとの関係とは全然別なものに僕は考えているんです。(中略)」

「ええ。それはよく解っています」

「(中略) ともかく出来るだけ穏かにお父さんに手紙を書いて願って見ましょう」〔中略〕

「今はどうか止めて。兄さんの気持も落ち着いた時に穏やかに手紙で書いて上げて下さい」(中略)

「(中略) それならお父さんに上げる手紙も理屈は云はないで、出来るだけ穏かにネ」と母は念を押した。(p.73)

이케우치 테루오(池内輝雄)는 위의 인용문에서는 「穏やかに」란 단어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테루오에 지적에 따르면, 계모는 「穏やかに」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준키치는 귀가한 후 「穏やかな顔した父」를 떠올리며 「穏やかな氣持」로 아버지께 편지를 쓰려고 하는 모습을 예로 들고 있다.⁵⁴⁾ 즉, 계모의 「穏やかに」를 사용한 거듭된 당부는 준키치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심연에 조화로운 기분을 발하게 한다고 여겨진다. 결국 계모의 배려로 조화로운 기분이 된 준키치는 아버지와 직접 대면하기로 한다. 마침내 친 어머니의 23번째 기일에 친가를 방문한 준키치는, 계모를 통해 아버지와 화해의 심중을 전한다. 그 순간 계모는 어머니라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숙이며 “부디 눈을 딱 감고, 잘못했다고 한 마디만 해 주세요(どうか目をつぶって一言お詫びして下さい)”라고 간곡하게 부탁한다. 여기서 계모가 부자간 화해를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계모의 간절한 애원이 준키치에게 화해 의지를 더욱 고양시켰을 것이다. 준키치와 아버지가 대면하는 순간까지 친어머니의 세심한 배려는 그치지 않는다. 준키치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서재로 가지만 아버지는 계시지 않는다. 그 사실을 계모에게 알리자 일부러 아버지를 찾아 서재로 들여보낸다. 친어머니의 기일이라는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준키치와 아버지의 화해의 장을 만들기 위해 배려하는 계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사람의 대면에 이르기까지 애쓰는 계모의 모습에서, 준키치는 부자간의 화해를 진정으로 희구하는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되새기게 되었을 것이다. 준키치가 아버지와

54) 池内輝雄, 「志賀直哉における語り手の意識構造」, 『国文学解釈と鑑賞』, 至文堂, 1994, p.128.

화해를 위해 재차 서재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온화한 얼굴(父の穏やかな顔)’을 보게 된다. 아버지의 이러한 온화한 모습도 역시 계모의 배려의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 준키치가 재차 서재에 들어가는 짧은 시간 동안 계모는 부자간에 원만한 화해를 위해 준키치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계모는 두 부자간의 온화한 화해의 장을 만들기 위해 착실하게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덕분에 준키치는 아버지와 불화로 소원할 수 있었던 친가의 가족들과의 교류가 용이하게 되면서, 심적으로 조화적 상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계모는 자칫 아버지와 불화로 엇나갈 수 있는 준키치를 혈연공동체로 묶어 주면서 가족복귀를 회구하고 있는 내면의식을 자각시키고 있다. 가족복귀에 대한 내면의식은, 결국 아버지와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조명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은 친구 M이 준키치를 배려하는 모습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和解』에서 친구 M의 실제모델인 무샤노코지와 시가와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가와 무샤노코지의 관계는 학습원 중등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가는 중등과 3학년과 6학년 때 두 번 낙제를 하면서 두 살 어린 무샤노코지와 조우하게 된다. 두 사람이 친구가 된 것은 1905년 함께 변론부의 위원으로 선출되어서 그해 가을 축인회(軸仁會) 대회의 연설 건으로 우에다 빈(上田敏)을 방문했을 때이다. 그 후 두 사람의 교류는 깊어져 14일회(十四日會)를 만들어 문학토론회를 결성하고 1908년 회람잡지 『望野』를 시작으로 1910년 문예잡지 『白樺』를 창간한다.⁵⁵⁾ 나카무라 미쓰오(中村光夫)는 시가에게 있어서 무샤노코지의 존재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샤노코지가 시가의 실생활의 동료인 동시에 예술상의 동반자 혹은 선배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시가는 다른 많은 시라카바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상면에서 무샤노코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예술가로서의 면모도 무샤노코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武者小路が、彼の實生活の親友であると同時に、藝術の上で彼の同盟者あるひは先達の役

55) 生井知子, 「志賀直哉と武者小路実篤」, 『国文学』, 学灯社, 2002, pp.44~51

割を果たしたことはすでに引く知られてゐます。彼は他の多くの白樺派の作家と同様に、思想の上では武者小路の影響を強くうけ、芸術家としても彼のパレットの繪具はことごと武者小路によつてつくられたといつても過言ではないのです。56)

즉, 무샤노코지는 시가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 동료로 그의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和解』에서 친구 M의 대한 서술은 미약하지만, 앞서 설명한 시가와 무샤노코지와 관계를 고려할 때, 친구 M의 존재는 준키치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준키치는 장녀를 잃은 슬픔과 아버지와의 오랜 불화로 심신이 피폐되어 있었다. 때문에 친구 M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비코로 이주해오는 것은 준키치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가 된다.

M이 연말부터 이웃마을에 살게 되고 나서는 아비코도 활기차졌다.(중략)나는 오랜만에 M과 빈번히 왕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내 마음속에 있던 M에 대한 오래된 사랑이 다시 뭔가 새로운 것을 부가하면서 짝터 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유쾌한 일이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중략)나는 편안하고 해이하지 않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Mが暮れ近く隣村に住むようになってから我孫子も賑やかになった。(中略)自分は久し振りでMと繁々往来するようになった。そして日が過ぎ、月が過ぎるに従って自分の中にあつたMに対する旧愛が、又何か新しいものを付加しながら目覚めて行くのを感じた。この事は愉快だつた。そして自分の心にいい影響を与えた。(中略)自分には和らいた、そして緩みのない気持の日が続くようになった。(pp.60~61)

‘상대방 속에 있는 좋은 점을 끌어내는 신비한 힘(相手の内にあるよきものを引き出す不思議な力)’의 소유자인 친구 M은 준키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M에 대한 ‘오래된 사랑’의 마음이 다시 발하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준키치는 평온해진다. 이 같은 M과의 교류는 장녀의 죽음 이후, 불안한 심경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없었던 준키치에게, 다시금 창작의욕을 불러일으키면서 회람잡지에 단편을 선보이게 된다. 이후 출판사에 작품을 발표하게 된 준키치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쓴 두 단편을 직접 M에게 보이며 조언을 구하는데, 이 같은 모습에서 준키치의 친구 M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56) 中村光夫, 위의 책, 1992, p.23.

M은 “짜임새 있는 작품이다(しっかり書いてあると思う)” 또 하나는 “차분한 맛이 잘 나타나있다(しんみりした味がよく出ているとおもう)” 라는 평가로 준키치를 격려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친구 M은 준키치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창작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준키치의 작품 활동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할머니의 병문안 시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의 돌아가라는 의사를 전달받은 준키치는 불쾌해진다. 그리고 할머니의 병환에 대한 걱정으로 침울해져 있었지만 선약한 친구 M부부와 만난다. 그러나 준키치는 우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고, 그러한 심정을 이해한 M부부는 준키치 기분에 가장 적절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위안을 준다. 준키치는 ‘구태여 말을 하지 않고도 셋이서 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받는다.(言葉は使わず三人に通う気分の上げで慰められた)’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친구 M은 준키치와 마음이 통하는 친구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서로 의식하여 행동하지 않고도 함께 있는 건만으로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같은 친구 M의 심적인 배려가 준키치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어 서서히 그를 조화적 심경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계모와 친구 M의 배려는, 준키치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조명하면서, 조화적 심경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3. 자연을 통한 자기순화

1914년 교토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시가부부는 부자간의 폐적(廢嫡)⁵⁷⁾처리로 얼룩진 결혼생활로 인해 안정된 생활을 보내지 못한다. 그로 인해 아내 사다코는 신경쇠약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시가는 불안한 상황을 극복할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자연을 벗삼은 여행이었다.

『和解』에서는 시가부부의 신혼살림의 이동경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와 아내는 교토를 떠나 가마쿠라에서 살 작정으로 유키노시타에 집을 빌렸으나

57) 적자로서의 신분이나 권리 따위를 폐함.

아내의 신경쇠약이 좀 심해져서 1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 조슈의 아카기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4개월 정도 살다가 그리고 나서 잠시 또 여행을 하다 10월 초부터 아비코의 데가누마 근처인 지금의 집에 자리 잡았다.

自分と妻とは京都を引払い鎌倉に住む心算で雪の下に借家したが妻の神経衰弱が少し甚くなったので、一週間程で又其所を出て上州の赤城山に行き、其所に四ヶ月程暮らし、それから暫く又旅をして十月の初めから我孫子の手賀沼の畔の今の家に落ち着いたのである。

(p.20)

실제로 시가부부는 교토를 떠나 찾은 곳이 鎌倉였지만, 그곳 생활은 불과 1주일 만에 끝나고 그 후 群馬縣에 있는 아카기산(赤城山)에서 거처를 마련한다. 그곳의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게 된다. 이 무렵 대자연과의 호흡을 배경으로 한 단편이 『焚火』이다. 아카기산에서의 생활은 도심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젖을 수 있는 있는 생활로, 시가부부는 어느 정도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 온 시가와 사다코는 진정한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실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각은, 아버지와의 오랜 불화를 일시에 불식시킬 수는 없었지만, 부자간의 불화를 희석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대자연 속에서 속세적인 모든 욕망에서 한걸음 물러나, 자신을 관조하고 삶을 조율하며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가의 창작 활동의 침체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현실적으로 아버지와의 갈등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감이 존속했다. 결국에 1915년 9월 아카기산을 내려오고, 마침내 10월 千葉縣 아비코에 자리 잡는다.⁵⁸⁾ 시가는 결혼을 기점으로 약 3년간 창작 휴지기를 보내는데, 이러한 긴정적의 시간은 시가 나름의 인고의 기간이었다. 그러한 인고의 과정을 거치고, 시가의 생활과 문학에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1916년 장녀 사토코의 탄생이었다.

『和解』에서 장녀의 탄생은, 오랫동안 침체된 준키치의 창작의욕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듯하지만, 갑작스런 장녀의 죽음으로 재차 열의를 상실하고 만다. 준키치 부부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급기야 아비코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다시 교토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친구 M의 아비코 이사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58) 本多秋五(1990), 위의 책, p.194~208.

우리들은 여행이라도 해서 갓난아기의 죽음으로 받은 충격을 빨리 잊고 싶었다. 3일을 7일로 세서 21일째를 칠칠에 49일로 하여 그날이 마침 아내에게도 산후 75일이 되는 8월 20일을 여행을 떠나는 날도 정해 두었다.

自分達は旅行でもして赤児の死によって受けた心の打撃を早く忘れたかった。三日を七日と数え、二十一日目を七々四十九日として、それが丁度妻にも産後七十五日になるところから旅立ちの日と決めて置いた。(p.55)

결국 준키치 부부는 여행을 통한 대자연과의 호흡을 통해서, 장녀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을 해소하고자 한다. 8월 아비코에서 출발하여 도쿄를 경유하여 간바야시(上林), 가가(加賀), 교토(京都), 나라(奈良), 호류지(法隆寺), 이시야마(石山)를 둘러보고 10월 초 아비코로 돌아온다. 이와 같은 여행을 통해서, “나는 내가 점점 조화적 기분이 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自分は自分が段が調和的な気分になりつつある事を感じた)” 준키치는 여행을 통해서 다시금 정신이 안정되고 조화로운 심경이 된다.

자연을 벗 삼은 여행의 배경에는, 결혼 전 시가 자신이 정신적 고뇌와 방황으로 창작활동이 진전되지 않을 때, 대자연과 호흡하며 자신의 삶을 관조했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그 중 전차사고로 인해서 요양 차 방문한 기노사키(城崎)에서의 체험과,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가 제안한 東京朝日新聞 연재소설에 대한 약속 불이행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할 무렵에 오른 호키다이센(伯耆大山)에서의 체험은 시가에게 문학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생과 사의 본질을 직시한 기노사키(城崎)에서의 체험은, 시가에게 참된 자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불의에 전차사고로 중상을 입은 시가는 타지마(但馬) 기노사키 온천에서 벌, 쥐, 도롱뇽의 죽음의 순간을 목도하고, 그 순간 자신의 전차사고와 대비함으로써, 생과 사의 경계를 관조하게 된다. 즉, 생사의 운명을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동식물을 지켜보며,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고찰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자각을 계기로 집필한 것이 『城の崎にて』이다. 『城の崎にて』에서 벌과 도롱뇽의 죽음을 보고, “살아있는 것과 죽고 마는 것, 그것은 양극이 아니었다. 그다지 차이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生きて居る事と死んで了つてゐる事とそれは両極でなかつた。それ程に差はないやうな

気がした)” 59)라고 말한다. 그것은 생에 집착하는 본능적 삶에서, 이제 생과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반대의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있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생사의 견해는, 자신을 자연에 일부분에 포함시키는 자연과의 일체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시가는 내부의 심적 변화를 가져오고 서서히 조화적 심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연과의 순화를 통해서 조화적 심경에 완성을 이루는 것이 시가의 유일한 장편소설로, 1912년 「時仕謙作」 이래 1937년 완결되기까지 25년이란 세월에 걸쳐 완성된 『暗夜行路』이다. 극 중 주인공인 겐사쿠(謙作)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갓 태어난 아기의 죽음, 아내 나오코(直子)의 과실로 인한 충격으로 괴로워한다. 겐사쿠는 그러한 괴로움을 떨쳐버리려고 大山으로 향하고, 그 곳에서 마음의 평온을 구하게 된다. 특히 그 이면에 대자연과의 교감이 중요하게 그려져 있다. 겐사쿠는 어느 날 등산객들 사이에 끼어 산행을 하게 되는데 도중에 뒤떨어져 혼자 남게 되었다. 낙오된 채 산중턱에 홀로 남겨진 겐사쿠는 “정신도 육체도 지금이 거대한 자연 속으로 녹아드는 걸 새삼 느낀다(精神も肉体も、今、この大きな自然の中に溶込んで行くのを感じた)” 大山에서 혼자가 된 겐사쿠는 아무런 불안도 저항도 없이 자연에 도취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자연과 일체가 되어 조화적 태도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静かな夜で、夜鳥の声も聴こえなかった。そして下には薄い靄がかかり、村々の灯も全てみえず、見えるものといえば星と、その下に何か大きな動物の背のような感じのするこの山の姿が薄く仰がれるだけで、彼は今、自分が一步、永遠に通ずる路出したというような事を考えていた。彼は少しも死の恐怖を感じなかった。然し永遠に通ずるとは死ぬ事だという風にも考えていなかった。

조용한 밤이라, 밤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래에는 옅은 연무가 끼었고, 마을의 등불도 모두 꺼지고 보이는 것이라곤 별과, 그 밑에 뭔가 커다란 동물 등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산 모습만이 옅게 누워있을 뿐이고, 그는 지금, 자신이 영원으로 통하는 길을 한걸음 내딛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금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영원으로 통한다는 것은 죽는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⁶⁰⁾

이처럼 겐사쿠는 대자연과의 교감상태에 몰입하여 자연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

59) 紅野敏郎, 위의 책, 1981, p.173.

60) 志賀直哉, 『暗夜行路(後編)』, 新潮文庫, 1982, pp.247~248

긴 채, 유구하고 위대한 자연과의 일체화를 이루고 있다. 자연속에서 불운한 자신의 운명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안식과 평온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자연을 통한 자기순화 과정이 조화적 세계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和解』에서는 자연 속에서 조화로운 심경이 되어 자신의 삶을 관조하는 모습에 대한 서술이 미약하지만, 실제 자연 속에서 많은 예지를 얻으며 조화로운 세계관으로 이행하는 시가의 모습은 아버지와의 화해의 과정 중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스도 마츠오(須藤松雄)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조화적 자연 관련이 생의 원리로써 두드러지게 생동하기 시작한 것은 다이쇼 6년 쯤 이고 그것과 결부해서 아버지와의 화해도 실현했다.

「調和的自然関連が生の原理としてあらわに生動しはじめるのは大正六年のころからであってそれと結び付きにおいて父との和解も実現した」⁶¹⁾

스도의 논지처럼 1917년에 아버지와의 오랜 불화는 일소되고, 그 바탕에는 1914년부터 1917년에 걸친 창작 휴지기간이 존재한다. 시가는 이 기간 중 사고로 인한 죽음에 직면, 자신의 결혼으로 인한 친가와 외가의 절연, 장녀의 죽음 등을 통해서 심적으로 고뇌와 갈등을 겪지만, 세속에서 벗어난 대자연 속에서의 호흡을 통해서 점차 자신을 순화시킨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주변에 대해 조화로운 심경을 발휘하며, 점차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이롭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61) 大久保定典, 위의 책, 1985, p.224.(재인용)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和解』의 주인공 준키치(順吉)의 의식변화과정을 ‘아버지와의 갈등’, ‘자아의 성숙’, ‘조화적 심경’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조부모 손에서 성장한 시가의 가정적 배경은 그의 강한 자의식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할아버지를 존경했던 시가는 상대적으로 아버지에게 대해서 비하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부자간 갈등을 빚게 된다. 그리고 청년 시절의 우치무라와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바른 것을 동경 하고 부정 허위를 증오’하는 결벽에 가까운 윤리관은 그의 자아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우치무라와의 교류를 통해 시가는 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그의 학습원 동료인 무샤노코지 등과 함께 1910년 문예잡지 「白樺」를 창간하기에 이른다. 「白樺」는 당시 문단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인간의 추악한 면을 폭로하는 자기 고백에 편중된 자연주의 문학에 반발하여 일어난 반자연주의 문학이었다. 개성존중과 자아확대를 주장하며 더 나아가 자아중심주의를 지향하는 「白樺」의 정신은 시가의 삶과 문학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和解』에서 아버지와의 갈등 요인은 준키치가 그전에 있었던 자신과의 불화를 해소할 목적으로 그가 살고 있는 교토를 방문한 아버지를 만나기 거부하면서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그에 관해서 일언반구의 사죄도 없는 준키치에게 격노한 아버지로부터 아자부친가의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더욱 대립하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갈등의 또 하나의 원인은 준키치의 결혼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준키치는 결혼을 통해서 자녀의 죽음과 탄생을 경험하면서 성숙하여가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본다. 때문에 결혼문제는 시가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았다. 실제 1914년 시가와 사다코가 결혼할 무렵 아버지 나오하루는 재혼인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시가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감행하고, 1915년 혼인 신고서를 내면서 志賀家로부터 스스로 호적을 정리하며 사실상 장자로서의 신분을 포기한다. 또한 자녀의 죽음 이후 준키치는 죽은 손녀를 도쿄 가족 묘지로 이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아버지에게 심한

분노를 느끼게 된다. 결국 아버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녀의 가족 묘지의 이장을 하면서 아버지와의 불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준키치는 차녀 탄생 이후 家長의식을 자각하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조명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의 자아성숙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성숙된 자아세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인품이 한 단계 도약되었다. 그리고 직업작가인 준키치는 장편 「夢想家」 집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여과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여 가면서 점점 조화적 심경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준키치가 아버지와의 대립구도를 벗어나 조화적 심경으로 전이할 시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실질적인 부모라고 여겼던 할머니의 죽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부분이다. 또한 아버지와의 화해를 위해 중재자가 되어준 계모의 배려와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친구 M의 도움으로 준키치는 조화적 심경이 되어 아버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조명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행을 통한 자연과의 교감으로 준키치는 조화로운 기분이 되어 아버지와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족간의 갈등 특히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가정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서 그 갈등의 정도는 다르지만, 시가의 경우는 조부모 손에서 성장한 배경과 맞물려 그 정도가 심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아버지와의 화해를 뜻깊게 아로새기는 작품 『和解』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아버지와의 화해를 회구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가 자신이 아버지와의 화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안정적 생활을 추구하게 되고 작가로서의 자신감을 얻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텍스트】

志賀直哉, 『和解』, 新潮文庫, 1982

1. 한국문헌

【단행본】

김환기, 『소설의 신 시가 나오야』, 건국대학교출판부, 2003

우스이 요시미 저, 고재석 외 옮김, 『일본 다이쇼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志賀直哉 저, 장남주 역, 『和解(화해)』, 時事日本語社, 1994

정인문, 『일본근대문학의 재인식』, 영한도서출판, 2001

【논문】

오상현, 「시가나오야(志賀直哉)의 前期私小説連作에 투영된 調和道程」, 한국일어 인문학회, 1988

최석재, 「시가나오야(志賀直哉)론-우치무라 칸조(内村鑑三)의 영향에 관하여」, 『일본근대문학2-연구와 비평』, 한국일본근대문학회, 2003

윤복희, 「아버지와 아들-시가나오야의 화해-」,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서희자, 「志賀直哉의 初·中期 私小説 고찰-父子갈등에서 화해에 이르는 도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최양재, 「시가나오야(志賀直哉) 문학고찰 -가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원주대학교, 2004

백수화, 「시가나오야(志賀直哉)의 『화해』론: 죽음의 인식을 통한 갈등해소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백영주, 「志賀直哉의 前期 作品에 나타난 自意識研究-『濁った頭』, 『剃刀』, 『范の犯罪』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2. 일본문헌

【단행본】

- 志賀直哉, 『暗夜行路(後編)』, 新潮文庫, 1982
- 浅井清, 『研究資料現代日本文学』, 明治書院, 1982
- 『一冊の講座』編集部, 『一冊の講座, 志賀直哉』, 有精社, 1982
- 紅野敏郎, 『鑑賞日本現代文學 7 志賀直哉』, 角川書店, 1981
- 志賀直哉, 『現代日本文學大系34』, 筑摩書房, 1979
- 鈴木範久, 『内村鑑三をめぐる作家たち』, 玉川大學出版部, 1980
- 中村光夫, 『志賀直哉論』, 日本図書センタ, 1992
- 西垣勤, 『白樺派作家論』, 有精堂選書, 1981
- 日本文學研究資料刊行會, 『志賀直哉I』, 有精社, 1965
- 日本文學研究資料刊行會, 『志賀直哉II』, 有精社, 1965
- 本多秋五, 『志賀直哉(上)』, 岩波新書, 1990
- 本多秋五, 『志賀直哉(下)』, 岩波新書, 1990
- 町田榮, 『日本文學研究大成-志賀直哉』, 株式會社國書刊行會, 1985
- 三好行雄, 『近代の文學 4 一大正文學の諸相』, 有斐閣双書, 1971

【참지】

- 池内輝雄, 「志賀直哉における語り手の意識構造」, 『國文學解釋と鑑賞』, 支文堂, 1994. 4
- 大津山國夫, 「志賀直哉と武者小路實篤」, 『國文學解釋と鑑賞』, 支文堂, 2003. 8
- 關谷一郎, 「和解論の提言」, 『國文學解釋と鑑賞』, 支文堂, 1987. 1
- 生井知子, 「志賀直哉と武者小路實篤」, 『國文學』, 學燈社, 2002. 4
- 吉田熙生, 「道草と和解」, 『國文學解釋と鑑賞』, 支文堂, 1982. 11

《Abstract》

A study on 『Reconciliation』 of Siganaoya
- Junkichi's consciousness change process in center -

Ko, Dong-Ok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Shiganaoya created works for about 50 years starting from the virgin work 『Rape flower and the virgin』 in 1904 to 『White line』 in 1956 while experiencing the rapidly changing modern Japanese periods of Meiji · Daisho · Showa. In addition, as the representative writer of ‘Sirakaba’, Shiganaoya completed his autobiographical novel through sensitive emotion and accurate expression.

『Reconciliation』 is one of the works that represent Shiganaoya's style. Shiganaoya faced internal conflict with his father for a long period of time, which was the most difficult problem to solve in his life, and clearly depicted his own suffering at that time through the main character, Junkichi in 『Reconciliation』 .

Shiganaoya grew up under his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nd was loved dearly, and such family condition became the basis of the formation of his strong consciousness. Especially, Shiganaoya comes to respect his grandfather

and relatively belittle his father. Such aspect is reflected in the main character, Junkichi in 『Reconciliation』 .

Junkichi refuses to meet his father visiting Kyoto to resolve his previous discord. Furthermore, Junkichi's father becomes enraged of the fact that Junkichi felt no remorse and refuses Junkichi to enter the Ajabu family, making the conflict even worse. Another reason for the conflict with his father becomes Junkichi's marriage problem, and Junkichi and his wife leads a stained honeymoon due to anxiety. After the sudden death of Junkichi's eldest daughter, Junkichi feels strong wrath towards his father who rejected his granddaughter's grave removed to the family graveyard.

Junkichi perceives consciousness of his position as a father after the birth of his next daughter, and reestablishes the relation with his father. He reflects his past and comes to understand his father. Additionally, Junkichi, a professional writer, purifies and filters his mind through his long work 『Dreamer』 , and build a mature ego to perceive his relation with his father objectively.

Junkichi recognizes the death of his grandmother who he regarded as his real parent, and recognizes his father as someone to rely on. In addition, through the help of his stepmother who takes the role as a coordinator to reconcile Junkichi and his father, and his friend M who shares a common mind, Junkichi comes into harmony and comes to review hi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And, through travels in the nature, Junkichi builds harmony in his mind and comes to make a true reconciliation with his father.

Conflict within families, especially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exists in any age. Depending on the cases, the degree of conflict differs, but in Shiganaoya's case, his grow under his grandparents made it strong. However, through his work 『Reconciliation』 that depicts deep meaning of reconciliation with his father, it can be known that how much he pursued reconciliation with his father. Shiganaoya himself pursues a secure life through reconciliation with his father, and he is gaining confidence as a writer, which is what is important.